

KIIP_DB

사회

1. 한국의 상징

학습목표 보기

- 한국의 정식 국가명이 '대한민국'임을 말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국기, 국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01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는?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줄여서 부르는 것이다. 한자로는 大韓民國, 영어로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한이나 South Korea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북한과 구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현재의 국가명인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太極旗)**라고 부른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4괘가 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존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것은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한다. 주변에 있는 **4괘**는 각각 건(하늘), 곤(땅), 감(물), 리(불)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할 때 태극기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경일이나 국가 기념일에 태극기를 자신의 집 문앞이나 창가에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국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를 **애국가**라고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 100여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애국가는 전체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국가 행사를 제외하고는 1절만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기: 애국가

- 1절**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 2절** :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 3절** :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 4절** :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 후렴(각 절마다)** :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국기에 대한 맹세**

- 한국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이때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를 같이 하기도 한다.

02 대한민국의 국화와 문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라는 명칭에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무궁화는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일 꽃을 피우면서 나무 하나에 약 2천여 개의 꽃송이가 핀다. 한국에서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아 왔다. 또한 현재는 다섯 잎의 무궁화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글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글은 자음(14개)과 모음(10개)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가 되는 과학적인 소리 문자이다. 자음은 사람들의 발음 기관을 보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었다. 자음과 모음 모두 합하여 24개이며, 소리가 나는 대로 적으면 되기에 비교적 익히기가 쉬운 문자이다.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문맹이 줄었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글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상을 줄 때 그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정하였다.

더 배우기: 국기를 다는 날

- **3월 1일 (삼일절)**: 일제 강점기 중 1919년에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한 날.
- **6월 6일 (현충일)** :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날 (조기 계약).
- **7월 17일 (제헌절)**: 1948년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한 날.
- **8월 15일 (광복절)**: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한 날.
- **10월 3일(개천절)** : 한반도에 민족의 시조가 국가를 만든 것을 기념한 날.
- **10월 9일 (한글날)** :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한 날.

주요 용어

- **문맹**: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나 그런 사람을 말함.

정리하기

1.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는?

-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국호는 1948년부터 사용됨.
-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담겨 있음.
- 대한민국의 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아서 애국가라고 부름.

2. 대한민국의 국화와 문자는?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임.
-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은 약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짐.

2. 한국의 가족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의 가족 및 친척 관계와 호칭을 말할 수 있다.
3.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의 가족은 주로 어떤 형태일까?

한국에서 결혼은 보통 30대 전후에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신랑의 나이가 신부보다 3~4살 정도 더 많으며, 자녀는 보통 1~2명 정도를 낳는다. 한국에서는 공부나 취업을 위해서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할 때까지 자녀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자녀를 여러 명 낳아 키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인 장남은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고, 나머지 자녀는 결혼을 한 후에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장남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도 했다. 그래서 한 집에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서로 간섭받기 싫어서 장남일지라도 결혼한 이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점차 부모와 미혼의 자녀만 같이 사는 **핵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홀로 사는 **1인가구**나 부부만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알아두기: 달라지는 한국의 가족

- 2010년 기준으로 3세대 이상이 한집에 같이 사는 경우는 적게 나타나며,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35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부만 사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용어

- **장남:** 부모가 낳은 자녀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 **핵가족:**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 **1인 가구:** 혼자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

02 한국의 가족과 친족은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간에는 주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아이의 이름을 사용하여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에게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른다.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아이를 낳기 전에는 보통 '(새)아가'라고 부른다.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며느리에게는 '어멈아', 아들에게는 '애비야'라고도 부른다. 아내의 부모는 사위에게 성을 앞에 붙여서 '서방'이라고 부른다.

아내는 남편의 누나에게는 '형님', 여동생에게는 '아가씨'라고 부른다. 형에게는 '아주버님'. 남동생이 결혼을 했으면 '서방님',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남편은 아내의 언니에게는 '처형', 여동생에게는 '처제'. 오빠에게는 '형님', 남동생에게는 '처남'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가족 관계를 '촌수'로 표시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1촌**, 형제자매 간에는 **2촌**이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나의 아이와 남편 여동생의 아이는 4촌이 된다.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사촌'이라고 부른다. 남편의 여성제네와의 사촌은 '고종사촌', 남편의 남형제네와의 사촌은 '친사촌', 아내의 여성제네와의 사촌은 '이종사촌', 아내의 남형제네와의 사촌은 '외사촌'이라고 부른다.

더 배우기: 한국의 가족에서 '우리'와 '식구'라는 표현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 애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등에서 '우리'는 '나'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와 당신'을 합한 표현이기에 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은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만큼 당신을 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가족 대신에 '식구'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식구라는 표현은 같이 한상에서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와 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경우에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는데, 이는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주요 용어

- **친족:**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까운 지인.
 - **'시집간다'와 '장가간다'의 의미**
 - 한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에게는 '장가간다'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시집간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남편의 집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집'이고, 아내의 집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가'이기 때문이다.
-

정리하기

1. 한국의 가족은 주로 어떤 형태일까?

- 결혼 후 부부가 독립하여 사는 경우가 많지만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음.
-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늘고 있음.
- 자녀를 1~2명 정도로 적게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 부부와 자녀만 사는 가족이나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 한국의 가족과 친족은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 한국에서는 가족 관계를 촌수로 따지기도 함.
 -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1촌임.
 - 형제 또는 자매간의 관계는 2촌임.
 - 부부간의 관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음.
-

3. 한국의 일터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사회의 직장생활 특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01 한국인들은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까?

한국에서는 15세 이상부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어서 보통 20세 이상이 되어야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5세에서 60세 전후에 직장에서 은퇴한다.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무원'이고, 뽑는 수가 적어서 경쟁률도 높다.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대학졸업을 앞둔 시기에 맞추어 입

사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시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 외에도 작은 **중소 회사**에 취직하거나,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녀의 대학 진학률이 비슷해지고 취업을 하는 남녀의 비율도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중반을 전후해서 출산과 양육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다시 일을 하기 원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알아두기: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한국 사람들은 직장생활에서도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직장 내에서도 윗사람에 대하여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같은 회사 내에서는 고향이나 졸업한 학교가 같은 사람들 간에 작은 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해지면 직장 동료 간에도 '형님'이나 '언니'라고 하거나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직장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용어

-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 .
- **맞벌이 부부**: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함 .

02 한국 사람들의 직장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관공서나 회사에서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한다. 그 가운데 12시를 전후하여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직장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하여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저녁을 먹고 직장에 남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을 '**야근**'이라고 한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만 일을 하는 '**주 5일제**'가 적용되지만, 일부 직장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 식당과 같은 가게는 1주일 내내 쉬지 않고 손님을 받는 곳도 있다. 대도시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여는 식당이나 물건을 파는 가게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회사 근처에서 직장 생활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모임을 갖기도 한다. 이를 '**회식**'이라고 한다. 회식을 하는 날에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기도 한다. 그래서 회식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더 배우기: 한국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휴일을 보내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인들이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TV보기, 컴퓨터하기, 등산하기** 등이 있다.

한국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약 **1주일 간의 휴가**를 갖게 되는데, 가장 무더운 때인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여름 휴가철에는 주로 해수욕장이나 계곡과 같은 시원한 곳으로 놀러간다. 최근 들어서는 휴가 기간에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특별히 휴가를 내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계절별로 국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요 용어

- **퇴근:** 일정의 일하는 시간이 끝났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정리하기

1. 한국인들은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까?

- 한국인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함
-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편임

2. 한국 사람들의 직장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 한국에서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일하는 시간이 끝나도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휴가는 더운 여름철인 7월 말과 8월 초에 많음

4. 한국의 교통과 통신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01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다.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는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사람들은 도로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해 있는 정류장에서 목적지 주변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버스 전광판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도착 시간을 미리 알 수도 있다.

지하철은 주로 대도시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지하철역에서 목적지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 된다.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지하철이 없다면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고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다.

택시는 요금을 내면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교통수단이다. 정해진 경로가 없고 목적지까지 비교적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택시는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기본요금이 비싸고, 이동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범택시**는 시설이 좋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택시(콜밴: call van)**는 차가 커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지만 일반택시에 비해 요금은 비싸다.

알아두기: 교통카드와 환승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교통카드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는 카드를 말하며 최근에는 택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에 이 기능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환승제도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해서 이동할 때 또는 2개 이상의 버스를 타야 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하는 제도이다. 이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환승은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은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횟수는 대체로 3-4회 정도 가능하다.

주요 용어

- **지하철이 있는 도시**
 - 현재 지하철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운행하고 있다.
- **교통카드**
 - 충전소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한다.

02 통신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통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정보나 소식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이 주된 통신수단으로 이용된다.

우편은 우체국을 통해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우체국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택배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보낼 수도 있다. 우체국 표시

전화는 다른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전화에는 집이나 사무실에 연결된 유선전화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어서 각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한국은 공공기관이나 개별 가정에도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PC)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더 배우기: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거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휴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 **[사례 1]** 딸이 아침에 학교에 갔어요. 딸이 나간 뒤 30분 후에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딸을 데리고 있다고 해요. 옆에서 딸이 우는 소리도 들려요. 그 남자는 빨리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해요 .
- **[사례 2]**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항상 이용하는 은행이에요. 문자에 적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평소에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
- **[사례 3]** ARS 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입니다. 소포가 도착하여 반송예정입니다. 다시 듣고 싶으시면 0번, 안내를 원하시면 9번을 눌러 주십시오"라는 안내가 나오 후 9번을 누르면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서 집주소와 전화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을 자세하게 물어 본 다음 전화를 끊는다.

→ 여러분이 위와 같은 전화 또는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 경찰청 1379, 검찰청 13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336)

주요 용어

- **택배:** 우편물이나 짐, 상품 등을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일.
- **무선통신:**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통신하는 것.

정리하기

1.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시내버스는 정류장에서 탈 수 있으며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정해진 경로로 이동함.
- 지하철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이동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음.
- 택시는 원하는 장소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나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비쌀 수 있음.
- 도시 밖으로 이동할 때에는 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타거나 기차역에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음.

2. 통신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우체국을 통해 국내나 국외로 편지나 물건을 보낼 수 있음.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전화로 대화할 수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

5. 한국의 대중매체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방송과 신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터넷과 SNS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01 방송이나 신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TV나 라디오, 신문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TV의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통 KBS, EBS, MBC, SBS 등의 TV방송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지역 방송도 있다. 이 중 EBS는 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와 오락,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운전 중에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청취자가 보낸 사연이나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신청받아서 들려주기 때문에 **청취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신문은 사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나 화제들을 지면(종이)을 통해 보여준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신문 외에도 스포츠나 경제 등을 다루는 전문신문과 각 지방이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도 있다. 신문은 대부분 유료지만, 요즘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배포되는 무료신문들도 많이 있다.

주요 용어

- **청취자:** 라디오를 듣는 사람.
- **신문의 종류**
 - 일반신문, 스포츠/경제신문, 지방/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무료신문.

| **알아두기: TV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면?**

과거에는 TV를 통해 볼 수 있는 방송이 KBS, EBS, MBC, SBS 등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하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케이블 방송**이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드라마, 영화, 오락, 뉴스, 스포츠, 홈쇼핑, 종교, 교육 등 약 90여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24시간 볼 수 있다. 또한 지나간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서 시간에 관계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02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이 만든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보를 얻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갖는 내용을 블로그 등을 통해 표현할 수도 있으며,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까페나 커뮤니티 등을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 각자의 관심이나 출신국가에 따라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들끼리 직접 소통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를 통해 SNS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광고나 전자상거래, 게임 등도 SNS와 결합되기도 한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SNS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다.

더 배우기: SNS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

SNS 이용자의 25.7%가 '하루에 1회 이상' SNS를 이용한다고 한다. SNS를 통해 친구나 가족과 소식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한다. 또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상품 및 기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주요 용어

- **포털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처음의 화면으로 사용 되는 사이트이다. 한국에서는 다음(daum), 네이버(naver), 네이트(nate) 등을 많이 사용한다.
- **UCC:**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 주로 인터넷 공간에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나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

정리하기

1. 방송이나 신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 TV는 영상을 통해 소식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구임.
- KBS, EBS, MBC, SBS 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고, EBS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라디오는 음성으로만 정보를 전달함.

2.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정보를 얻는 유용한 수단임.
- 인터넷을 통해 정보 검색, 이메일 확인, 은행 업무 등을 할 수 있고 블로그나 까페 등도 이용할 수 있음.
- SNS는 개인들끼리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

6. 한국의 복지체계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

0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일정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에는 크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네 가지가 있다.

- **건강보험**: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
- **국민연금**: 나이가 많이 들어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연금을 지급해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대

표적인 공공부조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히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한부모가정복지 등이 있으며 주로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아두기 : 사회보험 관련 기관 알아보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문의: 국민연금 업무 관련 문의: 1355,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
 - 문의: 건강보험 업무 관련 문의 : 1577-1000, www.nhic.or.kr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주요 용어

- **최저생계비** : 인간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한부모가정** :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부모 중 아빠나 엄마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02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는 한국 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

는 대상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 지원과 무료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임신과 출산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가 낮고 사회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 3~12세의 자녀에게는 자녀생활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생활 적응 및 취미 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있다.

더 배우기 :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안내센터는?

우선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가 있다. 이곳은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출입국 민원 상담과 관련 생활정보 안내를 18개 언어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제공하는 민원 안내창구의 역할을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생활 적응을 돋기 위해 10개 언어로 각종 생활 안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초기상담 서비스를 24시간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운영하고 있다.

정리하기

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
 -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실시
 - **국민연금**: 나이가 많이 들어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연금을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에 생활비를 지원
 - **의료급여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2.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 외국인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 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임신과 출산 지도 서비스와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7. 한국의 도시와 농촌

학습목표 보기

1. 도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농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도시와 농촌의 변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01 도시의 특징과 변화 알기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이뤄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는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특히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정치, 경제,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나 기업들은 주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나 교육, 문화 등의 공공시설들도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훨씬 많이 접할 수 있다. 특히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도로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도 더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시의 생활이 농촌의 생활보다 편리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생겨났다. 예를 들면 도시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이 부족해지거나 집값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주택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통이 복잡해졌고, 주차 문제 등도 발생하였다. 산업시설이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공기나 물이 오염되는 등의 환경문제도 심각해졌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확충, 교통체계 정비, 하수 정비 시설 확충, 녹지 공간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알아두기 : 주말농장이란 무엇일까?

도시에 살면서도 가끔 농촌에서 여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작은 농장을 마련하여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이라고 한다. 주말농장은 도시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하는 전원 생활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주요 용어

- **도시화** :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도시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의 생활 양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02 농촌의 특징과 변화 알기

한국은 과거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지만 산업화 이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농촌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에 비해 변화나 발전 속도가 느려서 전통적인 삶의 모습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오늘날 농촌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하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노인만 남게 된 가정들이 많아 노인을 돌보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종 편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 많은 농촌에서는 의료서비스 및 각종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을 현대화하는가 하면, 농촌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의 주택을 현대화하거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늘리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농촌에 와서 사는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정리하기

1. 도시의 특징과 변화 알기

- 한국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 추세를 타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일어남.
- 도시에는 정치, 경제, 행정 기관들과 의료, 교육 등의 공공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음.
- 도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생활의 범위가 넓음.
-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함.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음.

2. 농촌의 특징과 변화 알기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 문화, 편의시설 등이 부족함.
 -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함.
 - 정부에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음.
-

8. 한국의 인구 변화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인구정책을 알고 이해한다.
2.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한다.
3.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알고 이해할 수 있다.

01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한국의 인구는 현재 약 5,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세계 총 인구의 약 0.7%에 해당한다. 한국의 인구 변화는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1960년대-80년대에는 아이를 적게 낳도록 하는 정책이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게 되었고, 또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 났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4명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임신이나 출산,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2012년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알아두기 : 한국에서는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할까?

과거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문화가 발달하여 남자를 여자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남자에 비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는 딸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생각이 확산되면서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사라졌으며,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아들에 비해 딸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용어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 (만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고령화(노령화)** :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
- **가부장제** :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는 남성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이끌어 가는 것

02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56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약 59만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중 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의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7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과 베트남 등의 순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이다. 또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의 증가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처럼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 속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 배우기 :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법무부에서는 늘어가는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한국사회문화의 이해를 지원하여 국민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고자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 발급절차,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상설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교육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온라인상으로만 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 한국의 출산율은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음
-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 한국 체류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9. 한국의 보육제도

01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지원비**는 임산부가 각종 진료와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임산부는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인 **"고운맘 카드"**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운맘카드는 출산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과 **출산 장려금**도 있다.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며,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다.

- 소득, 재산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2013년 기준): 286,000-394,000 원
- 소득, 재산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220,000원

한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10만원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알아두기 : 임신·출산 지원금 이용 절차

1. 병원에서 임신 확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2. 고운맘 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고운맘 카드 신청서 제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3. 고운맘 카드 수령

-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4. 고운맘 카드 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주요 용어

- 아이사랑카드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 보육비/양육수당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02 영 · 유아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들의 보육 및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다.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 대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인이 설립한 **사립 어린이집**, 회사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정도까지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공휴일 보육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운영되며, 종일제 유치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정도까지 운영된다. 점차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교육기관의 보육비가 사립 교육기관의 보육비보다 싸다. 그래서 국·공립 교육기관에 어린이를 보내려면 미리 신청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영·유아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취학 전

유치원 이용: 만 3세 ~ 취학 전

보육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음)
2.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개인 신용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등록증(배우자), 통장
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더 배우기 : 다문화가정에서 보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일반 보육비 지원 금액과 같다.

|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정리하기

1.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 임신·출산 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로 지급됨.
- 고운맘카드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보육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 영·유아 보육비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됨.
-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됨.

2. 영·유아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할까?

-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음.
 -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취학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10. 한국의 학교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학제 및 학사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

01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초등교육 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등교육 기관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의 두 개 학기로 운영되며, 매년 3월에 1학기가 시작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한국 국민이라면 꼭 받아야 한다.

한국의 학기

- 1년 2학기
- 1학기 (3월~8월)
 - 3월~7월: 입학/개학
 - 7월~8월: 여름방학

- **2학기 (9월~다음해 2월)**

- 9월~12월: 개학
- 12월~2월: 겨울방학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하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한다. 자녀의 입학을 미루거나 앞당기고 싶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는 6년 과정으로 국·공립 초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로 구분된다. 정부에서는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국·공립 초등학교로 배정한다. 사립 초등학교의 수는 국·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매우 적어서 희망자 중 추첨을 통해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는 3년 과정으로 일반 중학교와 특수목적 중학교가 있다. 일반 중학교가 대부분이며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 중학교에 배정된다. 특수목적 중학교는 예술, 체육, 외국어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특화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고입선발고사나 학교별 입학시험을 치른 후 진학한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직업 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등의 분야를 집중 교육하는 학교이다.

의무교육

- 초등학교(6년)
- 중학교(3년)

알아두기 : 외국인 자녀의 한국 학교 생활

외국인 자녀를 한국 학교에 입학시킬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주변에 사는 이웃의 확인을 통해 주거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보내주는 가정통신문은 잘 읽어 보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부모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수업 준비물, 숙제 등을 기록한 알림장도 매일 살펴보아야 한다.

주요 용어

- **임대차 계약서** : 집이나 사무실 등을 빌려 쓸 때 작성하는 계약서

02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기술 등을 가르친다. 대학교는 학문 분야와 특성에 따라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에는 4년제 대학이 가장 많다. 특화된 직업 교육을 하는 2년제, 3년제 대학들도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는다.

한편,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하는 대학도 늘고 있는데 **방송통신대학, 디지털대학, 사이버대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일반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면 누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2010년에는 약 82%에 달하였다.

대학교의 등록금은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립대학교의 경우 1년에 300만원~500만원 정도, 사립대학교의 경우 1년에 600만원~1,000만원 정도 된다. 비싼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유학생이 늘고 있는데 유학생에 대한 숙소, 학비 지원 등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원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되며 각각 2~3년 정도씩 공부하게 된다. 대학원에서는 대학교에서보다 더욱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한다.

더 배우기 : 이런 학교도 있어요... 대안학교!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입시위주 등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학교다. 학생 중심,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대안학교가 각각 존재한다. 2012년 4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곳이 48개에 이른다. 대안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리하기

1. 한국의 초·중등교육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한국의 학기는 1년에 2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 시작은 매년 3월임.
-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하지만 입학 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 서류를 제출함 .
-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임.
- 중학교는 일반중학교와 특수목적 중학교로 구분됨.
-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구분됨.

2.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대학교는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됨.

-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기술 등을 가르침.
 -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대학교도 늘어나고 있음.
 -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됨.
 - 대학원에서는 대학교보다 전문적인 학문이나 기술을 연구함.
-

11. 한국의 교육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입시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2. 한국의 교육열과 사교육에 대해 말할 수 있다.

01 한국은 왜 대학진학률이 높을까?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특수목적 중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그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대학교 진학률도 80%를 오르내리는데 이 비율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인 **대학수학 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매년 11월에 실시된다. 수능은 대학 진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지금도 학력이 취업과 임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학력별 임금차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더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알아두기 : 한국에서 인기 있는 합격 기원 선물

한국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선물을 한다. **엿과 찹쌀떡**은 잘 불고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 많이 주고 받았다. 요즘에는 잘 찍으라는 의미의 **포크**, 잘 풀라는 의미의 **휴지**,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의 **거울** 등도 선물한다.

주요 용어

- **진학률** : 전체 졸업생 중 상급학교에 들어 가는 학생의 비율
- **임금** : 일을 하고 받는 돈

02 기러기 아빠는 왜 생겼을까?

한국은 진학률뿐만 아니라 교육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몇 가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쓴다. 정규 학교교육만 받으면 큰 돈이 들지 않지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며 경쟁한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생활은 더욱 힘들다. 그래서 '고3병', '입시지옥'과 같이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표현하는 말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서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연령도 더 낮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과 취업에 영어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에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쓰는 나라로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때 어린 자녀를 외국에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가게 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 학비를 보낸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한다. 1990년대 말 조기유학 열풍으로 시작된 기러기 아빠의 증가는 가족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더 배우기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 제도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전형과 특별한 자격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이 있다. 특별 전형 대상에는 농어촌학생, 재외국민, 특성화고교출신자, 저소득층학생 등이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은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과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대학별로 알아봐야 한다.

주요 용어

- **사교육비** : 초·중등학생의 학교 외 보충 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강의 과외비 등)
- **조기유학** : 초·중·고 학생들이 외국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

정리하기

1. 한국은 왜 대학진학률이 높을까?

-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입학시험을 보지 않음.

-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함.
-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름.
-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2. 기러기 아빠는 왜 생겼을까?

-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임.
-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
-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지나친 입시 경쟁 등의 부작용도 나타남.

12.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학습목표 보기

1.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다.
2. 이민자를 위한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다.

01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찾아서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필요할 때 원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평생교육은 글자 그대로 평생 동안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 과정이나 자격증과정 등을 운영한다. 각 지역에 있는 **구민회관,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는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수업료도 저렴하다. 음악, 미술, 외국어, 컴퓨터, 운동, 문화체험 등 다양한 수업이 연령층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맞게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SNS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문화센터**는 여성이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여기서는 요리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사진교실처럼 여가나 취미생활을 위한 과정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평생교육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이버대학이나 원격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교육 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아두기 :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도서관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독서교실, 저자 강연, 미술놀이교실, 각종 문화체험교실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도서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도서관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

어로 된 책과 음악자료, 동영상자료 등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모 나라의 동화 읽기,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체험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주요 용어

- **저자강연** :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
- **SNS** :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02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면서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돋기 위한 교육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이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거나 체류자격을 바꿀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사회적응교육, 취업지원교육, 자녀교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센터에 나오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 교육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방송(EBS)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의 위탁이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컴퓨터, 요리, 운전면허 필기, 한국 문화 체험, 이중 언어교육 등 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과, 제빵, 바리스타, 풍선아트, 네일아트, 원어민 강사 등 취업을 위한 교육도 제공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교육 과목과 지원하는 서비스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기 전에 각 기관의 상담 센터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한다.

더 배우기 :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가족 학생 중에는 한국의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다문화가족 학생이 가진 특기와 적성을 잘 살려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능력을 펼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 수업, 다중언어 수업, 다문화 수업, 직업 교육, 체험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 지구촌학교, 서울다솜학교,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아시아 공동체학교, 새날학교 등의 다문화 대안학교가 있다.

정리하기

1.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

- 평생교육은 일생 동안 필요한 분야를 계속해서 배우는 것임.
- 평생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있음.

2.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

- 이민자를 위한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있음.
- 이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됨.

문화

13. 한국의 전통 의식주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음식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3.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01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한국 음식의 기본은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다. 대체로 이것들을 한상에 차려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같이 먹는다. 한식은 밥과 반찬을 먹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다. 밥은 쌀을 재료로 하여 짓는 것으로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다. 한국인이 밥을 먹을 때에는 **국과 반찬**을 함께 먹는다. 국은 보통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서 끓여 먹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 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전골이나 국보다 국물을 적게 하여 끓여내는 **찌개**를 먹기도 한다.

반찬으로는 주로 채소를 이용하여 만든 나물이나 **김치**가 있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많은 가정에서 **김장**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김장이란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이다. 김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김치 이외에도 일정 시간 저장해 두었다가 먹는 **발효음식**이 발달해 있다. 발효음식으로는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장류**나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젓갈류**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밥과 함께 국, 반찬을 주로 먹지만 특별히 요리하여 먹는 음식도 많다. 이들 음식은 때로는 밥과 함께 먹기도 하지만 별도로 즐기는 음식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불고기, 삼겹살구이, 삼계탕, 비빔밥 등을 들 수 있다.

알아두기 : 한국인이 즐겨 먹는 떡

한국인들은 오랜 옛날부터 쌀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떡**을 즐겨 먹었다. 평소에도 떡을 먹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결혼식이나 제사, 명절, 생일 등을 맞이했을 때 떡은 꼭 있어야 할 음식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떡은 가족끼리 먹기도 하고 이웃, 친척 등과 함께 나누어 먹거나 선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백설기, 인절미, 절편, 가래떡 등이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떡이다.

주요 용어

- **김칫독** : 겨울에 김장한 김치를 저장하기 위해 땅에 묻어 두었던 것으로 요즘은 냉장고를 많이 이용한다.

02 한옥과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는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향집을 선호했다. 한옥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게 **온돌**과 **대청마루**를 갖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 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로 나뉜다. 초가집은 가을에 추수를 한 벗짚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이 살았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한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앓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지냈다.

요즘은 한복을 일상복으로는 잘 입지 않고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주로 입는다. 대신에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하도록 만든 **생활한복**이 등장했다.

더 배우기: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통 한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서울의 북촌과 남산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다. 전주한옥마을에서는 한옥생활체험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한옥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북촌한옥마을은 걸어서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은 조선시대 한옥을 그대로 복원해 놓아서 전통적인 주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용어

- **온돌** :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때면 불 기운이 방 밑에 있는 돌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 주는 전통적인 난방 장치
- **대청마루** :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정리하기

1.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 한식은 한국인의 전통 음식 문화임.
- 한식의 기본 식단은 밥, 반찬, 국이나찌개임.
- 한국에는 김치, 각종 장류, 젓갈류와 같은 발효식품이 많음.

2. 한복과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 주거 양식임.
- 한복의 온돌과 대청마루는 한국의 기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임.
- 한복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구분됨.
-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 의복임.
- 남자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여자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가 기본임.

14. 한국의 명절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명절과 자신의 출신국가의 명절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3. 한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 알 수 있다.

0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이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다. 음력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로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설날에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식인 **차례**를 아침에 지낸 후에, 집안의 어른들에게 큰 절을 하는 **세배**를 드린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새해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덕담**을 해주는데,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설날에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는데, 이것을 **설빔**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설빔으로 색이 곱고 화려한 색동옷을 입혔다.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은 **떡국**이다. 떡국은 장수를 의미하는 가래떡을 납작하게 썰어서 끓인 음식이다. 한국에서 떡국을 먹는 것은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한다. 설날에는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거나 아이들은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과 같은 놀이를 즐겼다.

알아두기 : 귀성 전쟁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은 고향의 부모를 찾아가는 **귀성길**에 나선다. 이때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요즘은 고향의 부모들이 자녀가 있는 대도시로 가서 명절을 지내고 오는 **역귀성**도 늘어나고 있다.

정월대보름에는 더위를 팔아요.

음력 1월 15일을 **정월대보름**이라고 한다.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날로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내 더위 사がら"라고 외치며 **더위를 판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여름의 더위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이날에는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다. 또한 호두, 밤, 땅콩 등을 딱 소리가 나게 깨어 먹는 **부럼 깨물기**를 한다. 예로부터 이것을 하면 피부병이 생기지 않고 이가 튼튼해진다고 전해온다.

주요 용어

- **덕담** :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로 주로 새해에 많이 함
- **성묘** :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돌보는 것

0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국의 또 다른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한다. 이때는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수확하는 시기로 일 년 중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날씨도 좋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생겼다. 추석에는 그 해 수확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차례**를 드린다. 추석에 **성묘**를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 **벌초**를 한다. 벌초란 무덤과 그 주위의 풀을 베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이다. 쌀을 이용하여 달 모양으로 만든 떡으로 솔잎 위에 쪄낸다는 의미에서 송편이라고 부른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추석은 일 년 중 보름달이 가장 크고 밝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추석 밤에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달맞이나 강강술래** 놀이를 즐겼다.

더 배우기 : 송편을 찔 때 왜 솔잎을 넣을까?

송편을 찔 때 솔잎을 넣으면 떡끼리 붙는 것을 막아 예쁜 모양을 그대로 지켜준다. 그리고 솔잎에 들어 있는 성분이 송편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

한국의 전통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 전통 놀이는 주로 명절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특별한 날에 즐겼다. 특히 농사 일을 쉬는 설에서 대보름 사이에 즐기는 전통 놀이가 많았다. **윷놀이**는 네 개의 윷을 던져 말판의 말을 움직이고 말 4개가 판에서 먼저 나오면 이기는 놀이다. **연날리기**는 대나무가 지에 종이를 붙여 만든 연을 바람을 이용해 하늘에 띄우는 놀이다. 대보름에는 연에 이름을 적어 연줄을 끊어 날려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나쁜 운도 같이 날아간다고 믿었다.

정리하기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함.
- 설날에는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함.
- 설날에는 웃어른께 세배를 하고 덕담과 세뱃돈을 받기도 함.
- 대표적인 설 음식으로는 떡국이 있음.
- 설날에 많이 하는 전통 놀이에는 윷놀이, 연날리기 등이 있음.

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 또는 추석이라고 함.
- 추석에는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함.
- 대표적인 추석 음식으로는 송편이 있음.
- 추석에 많이 하는 전통 놀이로는 달맞이, 강강술래 등이 있음.

15. 한국의 종교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다양한 현대 종교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01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주변에 많은 신령이 있고 이들 신령이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정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프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무속인을 불러 굿을 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곤 했다. 또한 미래가 궁금할 때에도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쳤다. 이는 무속인이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무속인을 찾아가 굿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신령에게 자신의 행운을 비는 경우도 많았다. 요즘에도 중요한 일이나 결혼을 앞두고 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무나 돌에도 신성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다. 대표적으로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인 **당산나무**가 있다. 요즘도 시골에서는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고 마을에 걱정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빌면서 당산나무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장승과 솟대도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켰다. 장승은 무섭게 생긴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을 말하며,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솟대는 긴 나무 막대기 위에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올려놓은 것이다. 사람들은 솟대를 세워 농사가 잘 되고 운이 좋기를 빌고, 마을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솟대를 세웠다.

알아두기 : 집 안에도 여러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집 안에도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성주신**은 가정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신이다. 안방에는 아기 를 태어나게 해주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삼신**이 있다. 옛날에는 아이가 일찍 죽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삼신에게 감사하고 아이가 잘 크기를 비는 마음을 담아 **삼신상을** 차려 안방에 두었다. 이 밖에도 부엌에 **조왕신**, 화장실에 **측신**,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 등이 있다.

주요 용어

- **무속(巫俗) 신앙**
 - 영어로는 샤머니즘(Shamanism)이라고 하며, 무속인(shaman)을 매개로 하여 신과 교류하는 원시적 신앙 형태

02 현대의 한국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

오늘날 한국인들은 무속신앙 대신 불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로서 한국인의 절반 정도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불교는 한국에 들어 온 외래 종교 중에 제일 오래 되었고 그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오래된 절(사찰)은 주로 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많아서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뉜다. **가톨릭**은 17세기에 서양의 학문과 함께 들어왔다. 가톨릭은 조선의 유교적 전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동안 금지된 종교가 되기도 했다.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개신교는 종교 활동뿐 아니라 병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가톨릭은 성당에서, 개신교는 교회에서 각각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다.

유교는 삼국시대에 처음 들어왔으나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고려시대 말에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한국인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기 때문에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교의 대표적인 의식으로 남아있다.

한편, **원불교**와 **천도교**는 한국 고유의 종교로서 이 종교를 가진 일정한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슬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다.

더 배우기 : 왜 고사 때 돼지머리를 올릴까?

요즈음 가게를 새로 열거나, 드라마·영화를 새로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사란 나쁜 운이 없어지고 행운이 오도록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제사이다. 대부분의 고사 상에는 돼지머리가 올라간다. 돼지머리를 놓는 이유는 돼지가 신에게 소원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도 있다. 고사를 지낼 때 절을 하고 돼지 입에 돈을 넣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동이다.

주요 용어

- **외래 종교** :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

정리하기

1.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 무속신앙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신앙임.
- 전통신앙에서 당산나무, 장승, 솟대는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음.

2. 현대의 한국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

-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 대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음.
- 현대의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임.
-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는 불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이 있음.

16. 한국의 주거 문화

학습목표 보기

-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알 수 있다.
- 한국인의 주거 형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한국에서 집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한국의 주거 형태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택은 보통 한 가구가 살기 위해 집을 한 채씩 따로 지은 형태를 말한다. 단독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것도 있다. 이를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가구는 세를 들어 사는 경우이다.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주택으로 크게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있다. 이 둘은 건물의 층에 따라 구분된다. 주로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주택이며, 종종 지하 1층에도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이며, 대부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한국의 주거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훨씬 많아졌다. 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점차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단독주택보다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한국에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아졌다.

알아두기 :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무엇일까?

한국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정부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싼 값에 집을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주택들은 저소득층이나 집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빌리거나 살 수 있다

주요 용어

- 소유권** : 어떤 물건이 자기 것이라는 권리
- 임대** : 빌려 주는 것
- 시세** : 일정한 시기의 물건 가격

02 한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한국에서 거주형태는 크게 **자가**, **전세**, **월세**로 나눌 수 있다. **자가**는 자기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 사는 것으로 한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주택 임대 방법이다. 전세 보증금은 이사를 나갈 때 돌려받게 된다. 전세 보증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월세는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것이다. 월세의 경우에도 액수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집주인과 실제로 계약할 때 서명하는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각 지역에 있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배우기 :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한국에서 **오피스텔**(officetel)은 사무실인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기능을 겸한 복합빌딩을 말한다. 일반 오피스 빌딩은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낮에는 사무업무 또는 작업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숙식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출퇴근할 필요 없이 같은 빌딩 내에서 사무 업무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건물로 대부분 지상 2~4층은 상업 공간이고 5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상업시설만으로 가득 찬 업무지역 또는 시내 중심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와 근무지간의 출퇴근 차량 운행과 교통량을 줄이고 퇴근 후 시내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요 용어

- **전입신고** : 이사 온 사실을 주민등록부에 기록하는 것
- **확정일자** :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장부

정리하기

1.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 한 가구를 위해서 집을 한 채씩 따로 지은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함.
-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함.

- 공동 주택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구분됨.
- 현재 한국에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음.

2. 한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

- 한국에서의 주요 거주 형태로는 자가, 전세, 월세가 있음.
-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사는 것을 자가라고 함.
-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 사는 것을 전세라고 함.
- 매달 돈을 내고 방이나 집을 빌려 사는 것을 월세라고 함.
- 집을 구할 때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17.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

학습목표 보기

1.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3. 돌잔치와 환갑잔치가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 생활 중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의례에 참여할 수 있다.

01 한국의 주요 의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것 등은 사람의 일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러한 일을 특별히 기억하는 의례가 있는데, 결혼식, 장례식, 제사, 생일 잔치 등이 그것이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의례를 **결혼식**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시·군·구청에 혼인 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지만, 그와는 별도로 가족, 친구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치른다. 결혼식은 예식장이나 종교 시설 등에서 주로 하는데,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내고 결혼식이 끝난 후 음식을 먹으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준다.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에게 전통적인 인사인 **폐백**을 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난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 그를 떠나보내는데 이를 **장례**라고 한다. 요즘에는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이한 후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한다. **유족**들 중 남자는 검정색 양복을, 여자는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을 입는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문상객도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고 **조의금**을 준비한다. 문상객은 죽은 사람의 사진에 두 번, 유족에게는 한 번의 절을 한다. 문상객들은 유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유족을 위로한다.

부모, 조부모 등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설 또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제사**라고 한다. 이 날에는 가족이 모여 조상을 생각하며 제사 음식 앞에서 조상에게 두 번의 절을 한다. 제사 음식은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는 조상의 덕을 기리고 조상의 덕을 통해 가족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갖는다.

알아두기 : 결혼식, 장례식에는 왜 돈을 가지고 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축하하는 마음 또는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돋는 한국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내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주요 용어

- **청첩장** : 결혼식에 초대하는 편지
- **축의금** :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품
- **문상** :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
- **유족** : 죽은 사람의 남아 있는 가족
- **조의금** :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품
- **화장** : 죽은 사람을 불에 태워 장례를 치를

02 한국에서는 생일잔치를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는 생일에 대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생일을 축하한다. 생일에는 일반적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하는데, 생일날 먹는 미역국에는 그때를 기념하여 부모에게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이나 60번째 생일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만 되어도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백일 잔치**를 벌였다. 시간이 더 지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돌잔치**를 갖는다. 돌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을 의미한다. 이날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해 준다. 특히 돌잔치에서는 **돌잡이** 행사를 치르며 즐거워한다.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환갑**이라고 한다. 평균 수명이 짧던 옛날에는 사람이 환갑 때까지 사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가 환갑을 맞이하면 자녀들은 잔치를 열어 부모가 오래 사시기를 기원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환갑 잔치보다도 70번째 생일인 **칠순 잔치**를 더 크게 여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 배우기 : 돌잔치에 갈 때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돌을 맞이한 아이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금반지는 아기가 금처럼 가치있고 순수한 모습으로 변치 말고 잘 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돌잔치에 받은 금반지를 모아 아이가 결혼할 때 결혼반지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금값이 크게 오른 요즘에는 금반지 대신 축의금을 내는 경우도 많다.

주요 용어

- **돌** :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
- **돌잡이 물건**
 - 돌잡이 물건에는 저마다 뜻이 있어서 돌을 맞은 아기가 무엇을 잡을지 지켜보는 것도 무척 재미있다 . 예를 들어 실을 잡으면 장수를, 돈을 잡으면 부를 상징한다.

정리하기

1. 한국의 주요 의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결혼식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임.
- 장례식은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임.
-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일임.
-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의 큰일을 치르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함.

2. 한국에서는 생일잔치를 어떻게 할까?

- 한국의 생일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생일을 축하함.
-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축하함.
- 돌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임.
- 돌잔치는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이며 돌잡이 행사를 함.
- 환갑은 60번째 맞이하는 생일로, 자녀들이 잔치를 열어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길 기원함.

18. 한국의 대중문화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자신이 경험한 한국 대중 문화와 본인의 출신 국가의 대중문화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예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중문화

각 사회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대중문화**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드라마, 노래, 춤,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곡, **트로트**, **발라드**, **R&B**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노래를 즐기고 있다. 중·장년층 중에는 대체로 트로트나 발라드풍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힙합이나 댄스 음악은 주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춤과 노래 실력을 두루 갖춘 **아이돌 스타**들이 방송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드라마를 즐겨보는 한국인도 많다. 한국에서는 아침 연속극, 일일 연속극,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연속극 등이 방송되고 있다.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인상적인 대사와 빠른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은 편이다. 시청률 40~50%를 오르내리며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드라마는 이른바 '국민 드라마'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스포츠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는 양궁, 태권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야구**, **축구** 등의 인기가 높다. 프로야구는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서, 모든 경기가 TV로 생중계된다. 국가 대표 축구팀과 프로축구의 인기도 그에 못지 않다. 한편, 일반인들이 즐기는 생활 체육도 점점 발달하여 야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마라톤 등과 같은 종목을 즐기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알아두기 : 야구장, 축구장에서 함께 응원해 보는 건 어떨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보통 2~3시간 전부터 팬들이 경기장에 입장해서 응원을 준비한다. 팬들의 응원은 매우 열정적이다. 막대 풍선이나 머플러는 물론 프로 구단의 전통에 따라 비닐봉지, 신문지, 라이터 등을 활용해서 독특하고 재미있는 응원을 펼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면 선수 개개인을 위해 만든 힘찬 응원가도 들을 수 있다.

주요 용어

- **트로트** : 4분의 4박자 리듬에 일본 엔카 음계를 곁들인 한국의 대중 가요 장르
- **R&B(Rhythm and blues)**
 - 1940년대 미국 흑인이 즐기던 대중 음악 양식으로, 강한 리듬에 부드럽고 애잔한 멜로디를 특징으로 한다.
- **아이돌(idol) 스타** : 우상처럼 떠받들어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02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힘

과거에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미국, 홍콩 등에서 수입해 온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물론 지금도 한국은 외국의 대중문화를 활발하게 수용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세계 곳곳에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춤, 게임 등이 널리 진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이것을 **한류(Korean wave)**라고 부른다.

한류의 중심에는 한국 드라마가 있다. <겨울연가>, <대장금>, <풀하우스> 등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후에 제작된 수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방송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서남 아시아 지역까지 이어져 이란에서는 <대장금>이 8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적인 특색과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도 호소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대체로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 **케이팝(K-pop)**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케이팝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였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음악은 대체로 단순하고 경쾌한 리듬,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재미있는 노랫말, 멋진 춤 실력 등이 어우러진 특징을 띠고 있다.

한편, 요즘에는 스포츠에서도 한류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태권도, 양궁,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의 종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의 기술, 정신력, 훈련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 한국인 지도자를 영입하여 자기 나라 국가대표 코치나 감독을 맡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더 배우기 : 케이팝은 왜 인기가 있을까?

케이팝은 대체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음악 중 댄스 음악, 힙합 등을 가리킨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아이돌 그룹의 케이팝은 서구의 다양한 음악 장르와 아시아적 감수성에 한국 문화가 담겨 있는 흥미로운 가사, 멋진 춤 등을 결합한 것이다. 케이팝은 오랫동안 준비된 것일뿐 아니라 아시아 문화 요소와 서구 문화 요소가 두루 들어 있어 경쟁력이 높다. 이것이 바로 한류가 아시아뿐 아니라 서구, 남미 등에서도 인기를 끄는 비결이다.

주요 용어

- **케이팝(K-pop)** : 한국 대중 가요를 폭넓게 가리키는 말

정리하기

1.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중문화

- 한국 노래에는 트로트, 발라드, 힙합, R&B 등 다양한 장르가 있음.
- 드라마는 한국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의 하나임.

-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중 스포츠임.

2.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힘

- 최근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곳곳에 퍼져 인기를 끌고 있음.
-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가리킴.
- 한국 드라마는 한국적인 특색과 가치 및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음.
- 케이팝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19. 한국의 전통 가치와 연고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에서 강조되어 온 전통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본인의 출신 국가의 전통가치와 비교할 수 있다.
2. 한국의 전통가치 중에 배워야 할 만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연고의 뜻을 알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4. 연고로 인해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01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모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를 중요하게 여긴다. 공부나 직장 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명절이나 부모의 생일이 되면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효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효라고 생각하였다. 효에는 자신의 부모 뿐 아니라 모든 웃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

한국은 **예절**을 강조하는 나라이다. 예절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높임말과 인사법**이 있다. 회의와 같은 공적인 모임에 가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사는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고개를 숙여서 예를 갖춘다. 명절,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은 날에는 부모나 웃어른, 유족 등에게 절을 한다.

한국에서는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상부상조** 전통을 중시해 왔다. 과거 농경 사회였던 한국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힘을 모아 해결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결혼식, 장례식 등이 있을 때 일손을 거들거나 비용을 조금씩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돋는다.

알아두기 : 알아 두면 좋은 이웃 관련 속담

한국에는 이웃과 관련된 속담이 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은 멀리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하는 친척보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다. 또한, "이웃사촌"이란 말은 마치 가족, 친척과 같이 친한 이웃을 뜻하는 말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집을 옮기게 되면 새로 만나게 되는 이웃에게 떡을 돌리기도 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새로 온 이웃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웃끼리 잘 지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주요 용어

- **품앗이** : 일손이 부족할 때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로 갚는 것
- **두레** : 한 마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함께 일하는 조직

02 한국인들은 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할까?

한국에서 살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이, 사는 곳, 직장, 자녀 수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혹시 자신과 공통점은 없는지,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서로의 공통점을 연결 고리로 하여 맺어지는 관계를 **연고**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은 연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을 혈연**이라고 한다. 한국은 **족보**를 만들어 기록할 정도로 가문을 중요하게 여긴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같은 성씨에 같은 가문의 사람이라면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고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이어진 인연을 **지연**이라고 한다. 1970년대 발전을 거치면서 직장, 공부, 결혼 등을 이유로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로 정착한 곳에서 사람들은 향우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또한, 같은 학교 출신에 따라 이어진 인연을 **학연**이라고 한다. 특히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해 맺어지는 학연이 중시되고 있다. 졸업 후에도 **동문회**를 조직하여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동문회, 직장에서는 대학교 동문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같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사회 생활 중에도 서로 돋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더 배우기 :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한국을 찾아 온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공통점,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 온 목적이 같은 사람, 출신 국가가 같은 사람, 나이가 비슷한 사람, 종교가 같은 사람 등이 그것이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자기와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용어

- **족보** : 한 성씨의 시작과 현재 자손까지의 순서를 기록한 책
 - **가족** :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 **인연**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동문회** :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락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
-

정리하기

1.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는 무엇일까?

- 효, 예절, 상부상조 등은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가치임.
-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를 실천하는 것임.
-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임.
- 이웃이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도움을 나누는 것을 상부상조라고 함.

2. 한국인들은 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할까?

- 한국인이 연고를 중요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과 관련됨.
 - 연고란 서로의 공통점, 비슷한 점 등을 연결 고리로 하여 맺어지는 관계임.
 -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핏줄로 맺어진 인연을 혈연이라고 함.
 -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으로 맺어진 인연을 지연이라고 함.
 -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학연이라고 함.
-

정치

20.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학습목표 보기

1. 민주공화국과 민주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져온 주요 사건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의 정치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치자나 정치가가 국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충돌을 해결해 주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 제도에 바탕한 **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하며, 공화국 또한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공화국인 한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인간존중의 정신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

민주정치는 크게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간접민주주의**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적용된다.

한편 민주정치와는 반대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통치자가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을 **독재정치**라고 한다.

알아두기 : 한국의 역대 대통령

한국은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부 형태이며,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재임기간별로 다음과 같다.

- 이승만 (1-3대): 1948-1960
- 윤보선 (4대): 1960-1962
- 박정희 (5-9대): 1963-1979
- 최규하 (10대): 1979-1980
- 전두환 (11-12대): 1980-1988
- 노태우 (13대): 1988-1993
- 김영삼 (14대): 1993-1998
- 김대중 (15대): 1998-2003
- 노무현 (16대): 2003-2008
- 이명박 (17대): 2008-2013
- 박근혜 (18대): 2013-2017

- 문재인 (19대): 2017~2022
- 윤석열 (20대): 2022~2025
- 이재명 (21대): 2025~현재

주요 용어

-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평등** :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02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은?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을 들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만들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제헌절)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4·19혁명은 당시 여당인 자유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1960년 3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것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4·19혁명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으로, 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및 민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을 계엄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지만, 이 운동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에는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1987년 6월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정감사권 등이 부활되면서 대통령 또는 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되어 행정부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더 배우기 : 한국의 정당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얻고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가 보장된

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 또는 '집권여당'이라 부르고, 그 외의 정당을 '야당'이라고 한다. 2013년 현재 여당은 '새누리당'이며, 야당으로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있다.

주요 용어

- 제헌국회 :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

정리하기

1. 한국의 정치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실시함.
- 한국에서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2.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은?

-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왔음.
-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으로는 4·19혁명(1960년), 5·18민주화운동(1980년), 6월 항쟁(1987년) 등이 있음.

21. 한국의 정치제도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외국인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한국 지방자치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할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선거원칙에 따라 치러진다. 여기에 자유선거 원칙이 추가되기도 한다.

보통선거는 국민으로서 만 19세가 되면 성별·재산·학력·권력·종교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성별·재산·학력·권력·종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는 것이다.

직접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한 사람이 어느 사람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알아두기 : 외국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과 동등한 **참정권**을 가질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후보로 나갈 수 없고 투표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투표일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 주민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를 '주민'으로 인정하여 지방선거투표권과 주민투표권 및 **주민소환권**을 부여한 나라이기도 하다.

주요 용어

- **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주민소환권** :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소환하고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권리

02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주민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의 정치와 행정 등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요구 사항을 일일이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제가 필요 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에서 지역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된다. 임기 4년의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한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데, 이 중 광역자치단체로는 2013년 현재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8개의 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로 구분된다.

더 배우기 :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하지만 선거일에 자기 집에 머물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들에게 따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것을 '**부재자 투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6일 전에 시작해서 2일 동안 하게 되는데,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하고 난 후, 따로 정해진 투표기간 동안 부재자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주요 용어

- **지방자치제**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 부터 나온 제도. 지역 주민의 삶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

정리하기

1. 한국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할까요?

- 한국에서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선거원칙에 따라 치르게 됨.
-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짐.
-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2.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8개의 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도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나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는 4년에 한번씩 치러짐.

22. 한국의 정부형태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국회, 법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01 한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한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국민들이 결정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가의 모든 일들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를 대표하거나 대신하여 국가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부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행정부는 군대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경찰을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이자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으며, 또 한 국방, 외교, 문화, 경제 등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행정부의 부처

-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와 관련된 일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미래경제에 관련된 일
- **교육부**: 초중고 대학 교육에 관련된 일
- **외교부**: 국가들간 외교와 관련된 일
- **통일부**: 통일과 관련된 일
- **법무부**: 법질서와 관련된 일
- **국방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
- **안전행정부**: 국민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체육, 관광 등과 관련된 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임업, 식품과 관련된 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무역 등과 관련된 일
-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일
- **환경부**: 환경보호와 관련된 일
- **고용노동부**: 일자리와 관련된 일
- **여성가족부**: 여성 및 가족 등과 관련된 일
- **국토교통부**: 국토개발과 교통 등과 관련된 일
- **해양수산부**: 해양자원, 어업과 관련된 일

알아두기 : 청와대 (The Blue House)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는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는 푸른색 지붕을 가진

집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과거부터 왕이 있던 궁궐이 위치했던 곳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현재까지 대통령이 나라 일을 보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일을 보는 곳, 퇴근 후 쉬는 곳, 대통령을 돋는 비서들이 있는 곳, 손님이나 기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용어

- **국무총리** :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 부처를 통괄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
- **장관**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의 각 부처의 책임자

02 법은 어디서 만들고, 재판은 어디서 할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국가의 일을 처리하려면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들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나라에 관련된 일을 논의하고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다. 법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고 판결을 내린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다.

더 배우기 :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헌법은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최고의 법으로, 모든 법은 헌법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및 국가 기관 구성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정책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으며, 이들의 결정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주요 용어

- **국회의원** :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 구성원
- **법원** :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기관
- **판사** : 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법관이라고도 함

정리하기

1. 한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 행정부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함.
-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며 행정부를 대표함.
-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있음.

2. 법은 어디서 만들고, 재판은 어디서 할까?

- 한국의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함.
- 국민들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함.
- 법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림.
-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음.

23. 한국의 정치과정

학습목표 보기

1. 정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익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여러 가지 시민참여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01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될까?

과거의 한국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나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직업이나 관심, 가치관 등이 무척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 보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정치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선거, 정치인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한다. 때로는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치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알아두기 : 민심이 곧 천심이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민심이란 국민들의 뜻을, 천심이란 하늘의 뜻을 말한다. 이 말은 국민들의 뜻을 하늘의 뜻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국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었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한국 국민들은 정치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요 용어

- **갈등** :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이익이나 목적이 충돌하여 다투는 것
- **정치과정** :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
- **정책** :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행동이나 방침
- **여론** : 다수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의견

02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직접 대표자가 되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잘 실현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집회·시위**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이다. 특히 요즘에는 거리행진, **촛불시위**, 1인시위 등과 같이 대체로 온건한 방식으로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정치참여 방법이다. 신문이나 TV 등의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개개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늘고 있다.

더 배우기 : 민주주의를 위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리 를 보장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자유가 존중되고, 권력이 통제되고,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주요 용어

- **촛불시위** : 광장 등에서 야간에 촛불을 들고 벌이는 평화적 시위
- **언론** :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만들어가는 활동

정리하기

1.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될까?

-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났음.
- 사회적인 갈등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 정치과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임.

2.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함.
-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임.
- 집회·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직접 알리는 정치 참여 방법임.
- 오늘날 신문, TV, 인터넷 등의 언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오는 중요한 수단임.

24. 한국의 국제관계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분단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01 분단의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남과 북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1948년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결국 남과 북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다. 유엔이 남한을 지원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3년 동안 계속되던 전쟁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끝이 났다. 한국전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산업 시설 등을 파괴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다.

이후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부터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적·문화적 교류도 늘어났고, 이산가족들의 극적인 만남도 이뤄졌다. 아직도 남북관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알아두기 : 철마는 달리고 싶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월정리 역은 분단된 한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이 역은 과거 남과 북을 이어주던 경원선 열차가 지나던 곳으로 현재는 기차가 다니지 않고 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팻말 문구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열망을 보여준다. 이 열차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07년 한 차례 운행되었다.

주요 용어

- **해방** :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 **유엔(UN)** : 2차 세계 대전 후 국제평화를 위해 결성된 국가들의 연합
- **휴전협정** :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지하는 것
- **정상회담** : 국가의 대표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

02 한국과 관련된 주변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곳으로 주변국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역시 주변 강대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한자, 유교 등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국가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여 한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류가 늘어났다. 최근에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이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점령했던 국가이다. 특히 한국 내에는 식민지 시절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여러 면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가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남한에 많은 영향을 준 대표적인 **우방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 전쟁 때 남한을 도와주었으며, 한국 전쟁 이후에도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 오늘날에도 양국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교류를 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였고,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무역 거래가 증가하고 외교 관계도 맺으면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현재 두 나라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다.

더 배우기 : 독도는 한국 땅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독도 문제**이다. 독도는 동해 맨 끝에 위치한 한국의 섬이다.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증명해 주는 수많은 문헌이 있으

며, 실제로도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용어

- **중국의 문화전파**
 - 과거 중국은 문화가 발전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유교, 한자, 불교 등을 전파했다.
 - **우방국가** :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

정리하기

1. 분단의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

- 해방 이후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한반도가 분단되었음.
-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피해를 겪었음.
-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고 있음 .

2. 한국과 관련된 주변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임.
 - 일본은 과거 식민지 문제와 독도 문제로 한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
 - 미국은 남한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왔지만 현재는 한국과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음.
-

경제

25.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

학습목표 보기

1. 한국 경제가 성장한 과정과 주요 산업이 변화한 모습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풍부한 노동력,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운 우수한 노동력이 수출 증가와 경제 성장에 기여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01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한국은 1950년대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1970년대부터는 세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79달러에 불과했는데, 2011년에는 22,000달러를 넘어서 50년 만에 약 280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알아두기 :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은 농업의 비중이 커졌다. 이후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발달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의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이 되는 선진국과 비슷한 구조로 변화하였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생명 공학, 정보 통신과 같은 첨단 산업의 발달에 힘쓰고 있다.

주요 용어

- **한강** : 한강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 흐르는 큰 강으로, 서울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
- **1인당 국민총소득** : 한 나라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
- **경공업** : 옷, 신발처럼 주로 일상생활 용품을 만드는 산업
- **중화학 공업** : 석유 화학, 조선, 제철 등 생산 방법이 복잡하고 기술이 필요한 산업

02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자연 자원, 기술, 자본이 많지 않았던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을 통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발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였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중화학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였다. 2000년대에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상품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 휴대폰, 석유 제품 등이다.

1964년에 겨우 1억 달러를 수출했던 한국은 2011년에 5,552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수입액**도 5,244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 대국이 되었다.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이며, 이들 3개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자원, 기술, 자본 등이 많지 않았던 한국이 수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이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가난해도 배우겠다는 교육열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더 성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노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주요 용어

- **수출** : 외국에 물건을 파는 것
 - **수입** :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
 - **무역 규모** :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
-

정리하기

1.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 경제 성장 배경에는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음.
-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1년에 22,000달러를 넘어섬.
-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형 구조임.

2.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 2011년에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음.
 -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운 우수한 노동력 덕분에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음 .
-

26.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

학습목표 보기

1. 세계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말할 수 있다.
2.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한국 상품들을 알 수 있다.
3. OECD, APEC, G20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힘을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이 해외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01 20-50 클럽에 진입하다

한국 경제는 빠른 성장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70년에 세계 30위권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1년에는 15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에 마침내 **20-50 클럽**에 진입하였다. 20-50 클럽이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나라를 말한다. 첫째,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2만 달러를 돌파해야 한다(2만은 영어로 20K로 표시). 둘째,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 세계 인구 강국이 되어야한다(5천만은 영어로 50M으로 표시). 지금까지 2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뿐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진입 함으로써 경제와 인구 규모 모두에서 세계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어느 신문사가 2011년 50개 주요 제품에 대하여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8개 제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에는 스마트폰, PDP 패널, D램, 평면 TV 등 첨단 제품들이 많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첨단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선진국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과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계 주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경제 문제로 회의를 열기도 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력 회의인 **APEC** 회담이 2005년 한국에서 열렸다.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과거 해외에서 받았던 도움에 보답하고 세계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다른 나라를 적극적으로 돋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9년에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온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더 배우기 :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베트남 중북부 도시 빈에는 한베 산업기술대학이 있다. 한국은 이 대학 설립 과정에서 75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수 기술자를 길러 냈던 경험을 이 대학에서도 발휘하여 졸업생의 95%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의 다른 지방 정부도 한베 산업기술대학과 같은 직업학교를 세워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0. 12. 13)

주요 용어

- **OECD** : 경제 성장, 어려운 나라 원조,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서 현재 회원국은 34개
- **지속 가능한 성장**
 - 미래 후손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환경과 자원을 남겨 놓고 하는 성장

정리하기

1. 20-50 클럽에 진입하다

- 경제 규모는 2011년 국민총생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큼.
-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7번째 나라로 20-50 클럽에 진입함.

2.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 한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세계적으로 선진국임을 인정 받음 .
- 한국은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 경제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
- 한국은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한 첫 번째 사례임.

27. 금융 기관 이용하기

학습목표 보기

1. 다양한 금융기관의 특징을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2. 한국에서는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말할 수 있고, 금융 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4.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장 한도를 말할 수 있다.

01 은행과 거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시중은행은 개인이 돈을 맡기고 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기관이다. 시중은행은 전국 곳곳에 지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개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중은행 외에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광역시나 도에 설립된 은행이 **지방은행**이다.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라고 할 때에는 이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뜻한다. 이들 은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안전하여 개인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예금을 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반드시 본인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 거래를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면 처벌을 받게된다.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은행에 계좌를 만든 후에는 ATM(현금인출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신에게 가장 편리하고 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원하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알아두기 : 대표적인 저축 상품은?

대표적인 저축 상품으로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있다.

- **보통예금**은 거래 금액, 기간, 입금과 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편리한 대신 금리가 0.1% 정도로 매우 낮다.
- **정기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이다. 큰돈을 모으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상품이며, 예금 금액에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입금해야 한다.
- **정기예금**은 기간과 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비교적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상품이다. 대체로 6개월 이상 맡겨두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서 2천만 원을 번 사람이 당장 쓸 곳은 없고 1년 후에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사용할 생각이라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공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받는 월급을 꾸준히 모아 큰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요 용어

- **금융 실명제** :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금리** : 이자율이라고도 함
- **입금** :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
- **출금** : 돈을 은행에서 찾는 것
- **만기일** : 약속해 놓은 날짜
- **원금** : 자신이 맡긴 돈

02 시중 은행 외에 어떤 금융 기관이 있을까?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농협, 수협, 우체국도 전국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예금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다.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지만, 시중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떨어지며 지점 수가 많지 않다.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예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주식이나 채권에 자신의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잘못 투자할 경우 본래 투자했던 돈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는 다양한 금융 기관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더 배우기 : 예금자 보호 제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래하고 있던 금융 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망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고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Q. 8천만 원을 A은행에 예금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어떤 경우라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금융 기관에 나누어 예금하세요.

Q. 저와 남편의 이름으로 각각 4천만 원씩 예금해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금융 기관 당 그리고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므로 가족 수만큼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종류의 예금이 다 보장을 받나요?

A.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은 보장받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돈 등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Q.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예금 보호를 받나요?

A. 여기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1인당 5천만 원씩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주요 용어

- **예금보험공사** :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기관
- **증권** : 주식과 채권을 합쳐 부르는 말

정리하기

1. 은행과 거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시중은행은 규모가 크고 지점 수가 많아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기관이지만, 그 대신에 예금 금리가 낮음 .
- 금융 실명제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제도임.
- 외국인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려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함.

2. 시중 은행 외에 어떤 금융 기관이 있을까?

- 지방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도 예금 할 수 있음.
- 증권 회사는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을 때 투자를 도와주는 기관임 .
- 보험 회사는 미래의 질병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때 이용하는 기관임.
- 금융 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망할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해 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음.

28. 시장과 장보기

학습목표 보기

1.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의 좋은 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형 마트,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3.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하고, 상품 구매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4. 물건을 구매할 때 유통 기한 표시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01 오늘은 어디에서장을 볼까?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이 있다. 정해진 날짜에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장이다. 3일에 한 번씩 열리면 3일장, 5일에 한 번씩 열리면 5일장이라고 부른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기 시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5일장 등이 남아 있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도 특정한 요일을 정해놓고 장터가 열리기도 하며, 여기에서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날마다 열리는 시장을 **상설 시장**이라고 하는데, 재래시장, 슈퍼마켓,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옛날부터 동네 가까이에 있었던 **재래시장**에는 물건 값이 싸고 상인들의 인

심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재래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상인이 물건 값을 **홍정**하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농수산물부터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팔고 있는 현대식 시장이다. 주차장이 넓고 물건의 종류가 많아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두려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정찰제**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TV를 통해 방송되는 상품을 전화로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입금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TV 홈쇼핑**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품을 주문 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의 인기도 매우 높다. 그렇지만 물건을 직접 보고 구입하지 못하므로 사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알아두기 : 부가가치세와 현금 영수증 알아두면 편리해요.

한국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10%인데, 대부분 가게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가격표를 붙여놓으므로 소비자는 세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가격표에 적혀 있는 돈만 내면 된다.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나중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들어 주는 현금 영수증 카드를 갖고 있으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용어

- **5일장** : 예를 들어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장이 열림
- **홍정** :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려고 노력함. 상인은 값을 높게, 소비자는 값을 낮게 부르며 값을 조정함.
- **정찰제** : 상품에 표시된 가격대로 파는 제도

02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고 상품의 수와 종류가 많아지면서, 물건 구입 과정이나 이후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수리**, **교환**, **환불**, **피해 보상** 등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구입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그 물건을 구입한 상점이나 그것을 만든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를 도와주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누구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는지 밝혀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소비자를 도와준다.

더 배우기 : 소비자를 보호하라

건전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안전과 권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구매하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상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어긴 판매자에 대해 소비자는 문제를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제조물 책임법**
 - 상품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게 하는 법
- **리콜 제도**
 -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문제를 알려주고, 그 상품을 수리, 교환해주는 제도
- **유통 기한 표시제**
 - 상품에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날짜를 상품에 표시하게 하는 제도
- **원산지 표시제**
 - 상품이 생산된 곳을 표시하게 하는 제도

주요 용어

- **소비자 보호 기관**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 등이 있음

정리하기

1. 오늘은 어디에서 장을 볼까?

- 정기 시장은 정해진 날짜에만 열리는 시장으로, 3일장, 5일장 등이 있음 .
- 재래시장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인심이 좋아 소비자들이 값싼 물건을 살 수 있고, 가격 흥정이 이루어짐 .
-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으며 정찰제 거래를 원칙으로 함 .
-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은 집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지만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므로 신중해야 함 .

2.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 소비자는 수리, 교환, 환불, 피해 보상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유통 기한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제조물 책임법, 리콜 제도 등의 소비자 보호제도가 있음.

29. 취업하기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일자리 상황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01 취직하기 쉽지 않네요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생산 활동에 참여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실업률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한국에서는 실업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업의 고통은 더욱 클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더 악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업자의 취직률을 높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실업자나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아두기 :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스펙(Spec) 열풍

스펙이란 영어 'Specification'의 줄임말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이 취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뜻하는 말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취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스펙을 갖추는 것이 무척 중요해졌다. 흔히 취업 준비생들은 직장을 구할 때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실무 경험 등을 갖춤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스펙 자체가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스펙에 집중하는데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취직할 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주요 용어

- **취직** : 일정한 직업을 구해서 직장에 나가는 것

- **실업률** :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 **자영업** : 자신이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
 - **비정규직** : 정규직으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을 이르는 말. 보통 정규직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음.
-

02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먼저 인력을 채용하려는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많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때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눈여겨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각종 직업학교나 평생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춘다면 취직에 훨씬 유리해진다. 또한 전문성을 증명해주는 **자격증**을 따거나 관련 분야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게 되면 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이력서**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취직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자신이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것인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이 불법적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자나 외국인의 경우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요 용어

- **구인광고** : 사람을 구하는 광고
 - **고용노동부** :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노동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국가기관
 - **자격증** :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증서
 - **이력서** : 사람의 학력, 경력 등을 적은 서류로서, 취직을 위해 사용
-

정리하기

1. 취직하기 쉽지 않네요

- 한국에서는 여성이 경제 활동에 적게 참여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실업에 대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업의 고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음 .
- 한국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 못지 않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함.
-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함 .
-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도 해당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수집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법

30.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학습목표 보기

1.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한국을 소속 국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국인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즉,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를 말한다.

외국인이 관광이나 회의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머물다 한국을 떠나게 되지만, 취업이나 **유학**, 기타 거주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된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알아두기 : 비자(VISA)란?

한국에서 VISA는 법률 용어로는 '사증'으로 불린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사증'이다.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외교·공무사증**: 외교(A-1), 공무(A-2), 협정(A-3)
- **비영리단기 사증**: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 **취업사증**: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직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일반 장기 사증**: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주요 용어

- **유학** :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것
- **체류** : 자기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것

02 외국인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심장과 붉은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또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도 취업한 이후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안전한 노동 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인에게는 보장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되는 권리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인에게만 인정될 뿐 외국인은 권리가 없다. 또한 경제 활동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기타 복지 혜택과 관련된 권리도 일부 제한되고 있다.

더 배우기 : 외국인 자녀는 한국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과 유엔아동 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2003.1)에 따라 신체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육 받을 권리와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휴식·여가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주요 용어

- **조약** :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
- **근로기준법**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복지** : 행복한 삶

정리하기

1.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사증이 필요함.
-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음.

2. 외국인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 정치적, 경제적 권리 중 일부는 한국인에게만 허용됨.

31. 대한민국 국민 되기

학습목표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출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말할 수 있다.

01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거나 한국인을 닮은 사람 또는 한국인과 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국적(nationality)**이다.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國民)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태어난 장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태어난 장소보다 **부모의 국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태어났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알아두기 : 국적과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에는 언제 어디서 출생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출생 증명서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각기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출생 증명서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 요건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이기 때문이다.

주요 용어

- 국적법 : 국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법률

02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귀화(歸化, naturalization)**라고 한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일반귀화는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일반귀화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하고,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귀화 신청 당시 민법상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와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본인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그리고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 경우에는 간이 귀화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간이 귀화에는 **혼인귀화**의 경우가 있는데, 한국 국민인 배우

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귀화는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귀화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귀화 신청
2. 귀화요건 심사
3. 귀화적격심사(귀화 필기 시험)
4. 귀화적격심사(귀화 면접 심사)
5. 귀화 허가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2010년 이후 매년 약 16,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있다.

더 배우기 : 외국인 자녀의 국적 문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최소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자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 즉 국적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주어진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 이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주요 용어

- **품행** : 품성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단정** :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름
- **법무부** : 출입국 관리를 포함하여 법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정리하기

1.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일까?

-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킴.
-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음.

2.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 외국인도 귀화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음.
- 귀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함.

32.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학습목표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병역과 납세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나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켜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란 법에 의해 약속된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타인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행위나 공정한 재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한국인에게 보장된 권리들이다.

알아두기 : 모든 한국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병역의 의무란 일정 기간 동안 국토방위를 위해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다. 군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원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의무이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병역의무는 2년(육군기준)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의무가 아닌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군대에 갈 수 있다.**

주요 용어

- **공정** : 공평하고 올바름
- **권리** :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02 한국 국민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에는 일정한 연령과 조건의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도 포함된다.

국방의 의무 외에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

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자식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육의 의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하는 **환경보전의 의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의무** 등이 있다.

더 배우기 :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의무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용어

- **소득세** :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
- **국세청** : 세금의 부과 ·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정리하기

1. 한국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 권리란 법에 의해 약속된 힘이나 자격임.
-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함.
- 한국 국민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

2. 한국 국민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 의무는 법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임.
- 한국 국민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가짐.
- 한국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짐.
- 한국 국민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의무 등을 가짐.

33. 한국의 법 집행 및 분쟁 해결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사법 처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법 집행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인들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형법**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형법을 어길 경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민법**에는 사람들 간의 권리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각 개인이 서로의 권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민법이 **분쟁** 해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형법 제 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거나 개인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사법(司法: judicature)**이라고 한다.

형법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하며, 민법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민사재판**이라고 한다. 민사재판은 개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라는 법집행기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판을 신청한다.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을 **사법부**라고 하며, 재판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이다. 판사는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아두기 :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돋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등의 경우에는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까지 무료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용어

- **분쟁** : 개인이나 단체간의 다툼
-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 **민법** :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

02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이 있다. 이를 **법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이에 해당한다.

법집행기관은 직접 나서서 범죄자를 잡아들여 조사하기도 하고,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신고**로 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도 한다. 법집행기관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을 적용하여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법집행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질서유지 등과 같은 일을 한다. 경찰을 직접 찾아 가지 않더라도 **112**로 전화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한다.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경찰과 유사해 보이지만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찰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배우기 : 특별사법경찰이란?

특사경이라고도 불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다. 오늘날 경찰이 직접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세관 등의 담당 직원들이 경찰을 대신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들 또한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법집행기관의 구성원들이다.

주요 용어

- **피해자** :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의 침해나 위협을 받은 사람
- **112** : 범죄신고를 위한 전화번호

정리하기

1. 한국인들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 사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과정임.
- 형사재판은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처리과정임.
- 민사재판은 민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처리과정임 .

2.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 경찰과 검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임.
-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경찰이나 검찰 이외에 특수사법경찰들도 법을 집행할 수 있음.

34. 한국의 생활법률

학습목표 보기

- 법을 통해서 재산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 법을 통해서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01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외국인은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돈에 관련된 약속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는 나와 상대방의 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차용증에는 빌리는 돈과 이자가 얼마인지,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는 계약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해당 부동산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게 될 때에는 집을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맺을 때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알아두기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한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을 기간으로 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2년 더 효력을 가진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줄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용어

- 계약** :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말이나 글로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것

- **차용증**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

02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개인적인 일에서도 개인들 간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먼저,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예를 들면 부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서로 협조하여 생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집 밖에서 일을 하고 버는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주부가 집안에서 하는 일도 생활비의 부담으로 인정된다.

부부로서의 관계를 끊고 싶을 때에는 합의나 재판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만약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협의 이혼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하거나 배우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혼할 수도 있다 (**재판상 이혼**). 이혼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더 배우기 :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는 누가 키울까?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부모는 상대방에 대해 자녀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지 않게 된 부모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녀와 만나는 것이 허용된다.

주요 용어

- **혼인신고** :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
- **협의 이혼** :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행하는 이혼
- **재판상 이혼** :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이혼
- **위자료** :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

정리하기

1.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의 도움을 받을 때 유리함.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음.
-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함.
-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

2.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함.
-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의무를 지니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음.
- 부부 한 쪽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

35.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학습목표 보기

1.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2.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01 소송을 통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한국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때는 법의 도움을 받게 되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법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 소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개인들 간의 재산 문제나 가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세금 등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한다.

소송이나 재판과정에서는 보통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익적인 법률단체 등

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쟁을 재판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재판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당사자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아두기 : 긴급한 도움을 받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곳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는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에게 연락할 수 있고 **119**는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4**는 각종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1345**는 외국인들을 위한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긴급 전화번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다급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요 용어

-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소송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나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02 권리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은 어디일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처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입은 잘못된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의 잘못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늘날 소비자로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도 존재한다. 현재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외국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경찰서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배우기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과 관련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권리의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기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리와 제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 **국가인권위원회** :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
- **주민자치센터** : 주민들의 복지와 자치를 지원하고 지역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곳

정리하기

1. 소송을 통해 어떻게 권리의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임.
- 피해자 개인은 상대방인 개인, 집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소송이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무조건 재판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도 중요함 .

2.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받는데 도움을 줌 .
-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의 보호함 .
- 외국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관이 존재함.
-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6. 준법의 중요성

학습목표 보기

1. 올바른 법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정의로운 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01 법은 지켜야 한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본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도 신호등에 따라 움직인다.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길을 건널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자동차들도 잘 다닐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심각한 무질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해 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좋은 법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이민자나 외국인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알아두기 : 속담에 담긴 한국의 법문화

법과 관련된 속담들을 보면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은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요 용어

- **준법정신** :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정신

02 정의로운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많은 대가를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법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돈이 있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법의 이름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의 법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국민의 대표자들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잘못된 법을 고치거나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민자들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을 때 한국 사회는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배우기 : 정의의 여신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용어

- **정의** : 각 개인에게 그의 뜻을 주는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정리하기

1. 법은 지켜야 한다

-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은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해 둔 약속임.
- 국민들은 준법정신을 가짐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권리도 지킬 수 있음.

2. 정의로운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법은 정의를 추구함.
-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법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들은 잘못된 법을 고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역사

한국의 역사 I (고대)

학습목표 보기

1. 연표를 통해 한국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2.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고대국가 수립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나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 역사의 흐름은 어떠했을까?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자.

- 서양

- 기원전 1800년 함무라비 왕, 메소포타미아 통일
- 기원전 27년 로마, 제정 수립
-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 1096년 십자군 전쟁
- 1338년 영국, 프랑스 백년 전쟁
-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 1600년 영국, 동인도회사 설립
- 1914년 1차세계대전
- 1940년 2차세계대전
- 1948년 세계인권선언

- 한국

-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 기원전 57년 신라 건국
- 기원전 37년 고구려 건국
- 기원전 18년 백제 건국
- 676년 신라 삼국 통일
- 918년 왕건, 고려 건국
-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
- 1392년 이성계, 조선 건국
- 1443년 세종, 한글(훈민정음) 창제
- 1592년 임진왜란

- 1897년 대한제국 설립
 - 1910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제병합
 - 1919년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945년 8.15 광복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남북 분단
 - 1950년 6.25 전쟁
- 동양
 - 기원전 2500년 중국, 황하 문명 시작
 - 228년 진, 중국 통일
 - 890년 캄보디아 앙코르 왕조 설립
 - 1192년 일본, 가마쿠라 막부 성립
 - 1206년 칭기즈칸, 몽골 통일
 -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통일
 - 1803년 안남, 국호를 베트남으로 정합
 - 1912년 쑨원, 중화민국 선언
 - 1937년 중일전쟁
 - 1949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주요 용어

- **황하문명** : 중국 황하 유역에서 일어난 문명으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
- **십자군 전쟁** :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들이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벌인 전쟁
- **몽골** : 13세기 초 칭기즈칸이 세운 제국
- **종교 개혁** : 유럽에서 일어난 크리스트 교회 혁신 운동

02 한국 최초의 국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고조선**이다. 청동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만주 지방과 한반도 북쪽에는 많은 부족들이 나타났다. **단군**은 이러한 부족들을 합하여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반도에는 많은 국가들이 들어섰다. 그 중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삼국시대**를 열었다.

삼국 중 먼저 발전한 나라는 **백제**이다.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하여 활발하게 무역하며 화려한 문화를 꽂피웠다.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대왕에 이르러 영토를 크게 넓혔다.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 지방과 만주 땅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꾸준히 발전하였다.

신라는 삼국 통일의 준비를 착실히 하여 676년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서라벌(오늘날의 경주)을 수도로 삼고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갔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어 별자리를 관측하였고, 농업을 발전시켰다. 또한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신분 제도의 한계와 지배층의 사치로 백성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의 후삼국으로 나뉘어졌다.

더 배우기 : 발해는 어떤 나라였을까?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이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가장 영토가 넓었던 9세기에는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 당시 중국에서는 발해를 '바다 동쪽의 큰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면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있던 시기를 **남북국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주요 용어

• 화랑도

-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에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을 만들었다. '화랑도'의 많은 인재들은 이후 신라의 통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정리하기

1. 한국 역사의 흐름은 어떠했을까?

고조선 건국 → 삼국시대 → 신라 삼국통일 → 고려 건국 → 조선 건국 → 일본 강제합병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주권회복 → 대한민국 정부 수립

2. 한국 최초의 국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 한국 최초의 국가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고조선**'임 .
-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하여 활발하게 무역하였음.
-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한반도 중부 지방과 만주까지 영토를 넓혀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음.
- **신라**는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음 .

-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음.

38. 한국의 역사 II (중세)

학습목표 보기

1. 고려의 성립 과정을 말할 수 있다.
2. 고려의 사회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의 성립 과정을 말할 수 있다.
4. 조선의 사회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01 고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통일신라 말, 충청 지역의 **호족**이었던 **왕건**은 918년 **고려**를 세우고, 그리고 935년에 신라를,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후삼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발해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였다. 왕건은 한반도 북쪽의 지역을 다시 찾아서 진정한 민족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다.

고려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특히 개경(오늘날 북한의 개성) 근처의 **벽란도**는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무역을 하였다.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코리아**'가 되었다.

고려의 정치는 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려 말에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던 때도 있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주로 **불교**를 믿었으며, 국가가 주도하여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를 열었다.

고려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계속 받았으나 모두 물리치면서 영토를 넓혀갔다. 그러나 14세기 남과 북으로 외국세력의 침입을 받았고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성장한 세력의 대표인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세웠다.

알아두기 :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 고려 말 충신 정몽주

고려 말에 귀족과 불교계의 타락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집단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졌다. **정몽주** 등은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했으나 정도전이나 이성계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몽주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후 정몽주가 죽임을 당한 개성의 선죽교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는 정몽주의 핏자국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주요 용어

- **호족**: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

02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1392년 조선을 세운 태조(太祖) 이성계는 2년 후 한양(현재의 서울)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 사상을 토대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신분제 국가였는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신분별로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었으며 신분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 **양반**: 문반과 무반 및 그들의 가족을 말함
- **상민**: 주로 농사를 짓고, 국가에 세금을 냄
- **중인**: 주로 통역관, 의사와 같은 기술직 일을 맡았음
- **천민**: 노비, 백정 등과 같이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함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조선은 일본과 중국(청)의 침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토가 황폐화되는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농업과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정치와 사회는 안정을 되찾았으며, 문화 또한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더 배우기 : 유교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백성들도 유교의 내용에 따른 생활 예절을 지켜나갔다. 유교에서는 신하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삼강**). 나라에서는 이를 잘 지킨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그림과 함께 책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어린이는 어른을 존경하고, 친구끼리 서로 믿는 것(**오륜**)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주요 용어

- **문반**: 경전, 행정 등 문과(文科) 출신의 관리 집단이 중심이 되는 신분
- **무반**: 무술 등 무과(武科) 출신의 관리 집단이 중심이 되는 신분
- **삼강오륜[三綱五倫]**
 - **삼강(三綱)**: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 **오륜(五倫)**: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

정리하기

1. 고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서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음.
- 고려는 귀족이 중심이 된 불교 국가였음 .
- 고려시대에 벽란도에서는 외국 상인들과 무역을 활발히 하였음.

2.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 이성계는 한양(현재의 서울)으로 도읍을 옮기고 조선을 세웠음.
- 조선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음.
- 조선의 신분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됨.

39. 한국의 역사 III (근대)

학습목표 보기

1. 조선 후기에 새롭게 생긴 학문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에 한국이 맞이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3.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6-17세기에 큰 전쟁을 겪었던 조선에서는 나라 안팎으로 몇 가지 변화를 맞이하였다. 나라 안에서는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다. 나라 밖에서는 서양 여러 나라가 조선에 문물 교류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당시 지배층인 유학자들은 실생활과 상관이 없는 학문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던 학자들은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고 나라의 힘도 길러 줄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을 **실학**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 도입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은 실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실학자들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변화를 주장했다. 특히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은 농사짓는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19세기 말 서양의 여러 나라가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배외정책(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쇄국정책은 한동안 서양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늦게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알아두기 :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한국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은 과학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으로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쌓을 때 이용하도록 하였다. 거중기는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기계이다. 거중기를 활용한 덕분에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동안 사람들의 힘이 덜 들었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다룰 수 있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은 다른 성에 비해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다.

주요 용어

- **실학**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
- **쇄국정책** : 다른 나라와 통상, 교역을 금지하고 외교 관계를 제한하는 정책

02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개혁은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

한국을 점령한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大战이 일어나자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한국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독립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려나갔다. 또한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언론, 교육, 경제 활동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계속된 독립운동은 한국이 독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게 되었다.

더 배우기 : 국채보상운동은 어떤 독립운동이었을까?

일제강점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면으로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 중 국민들의 모금으로 일본에 진 나라의 빚을 갚아 국권을 되찾고자 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 운동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유학생, 그리고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반찬값을 아끼거나 반지, 목걸이, 귀고리를 팔아 모금에 참여했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돈을 모아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려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요 용어

- **위안부** : 일본 군인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여성
-

정리하기

1.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조선 후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학문인 **실학**이 발달함 .
- 조선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쇄국정책**을 실시함.

2. 일제 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빼앗김.
 - 일본의 강압적 통치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음 .
 -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남.
 -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국권을 되찾음.
-

40. 한국의 인물사 I (지폐 속 위인들)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화폐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말할 수 있다.
2. 화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01 천 원권과 오천 원권에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각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그림, 문화 등이 담겨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도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폐는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오만 원권**의 네 가지이다. 이 지폐 속에는 각각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 있다.

먼저 한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지폐인 천 원권에는 **이황**이 있다. 이황은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학자 중 한 명으로 학문 수준이 높아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관직에 욕심을 내지 않고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황을 존경하였으며 그의 학문은 여러 훌륭한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오천 원권에는 이황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이**가 있다. 이이는 역시 이황과 마찬가지로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고 많은 책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안타깝게도 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 조선은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알아두기 : 한국의 동전에 새겨진 의미

한국에는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동전이 있다. **500원** 동전에는 **두루미**가 그려져 있는데 두루미는 과거 흰 옷을 즐겨 입었던 한국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100원** 동전에는 조선시대 바다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던 **이순신 장군**이 있고, **50원** 동전에는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쌀이 만들어지는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10원** 동전에는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다보탑**이, **5원**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이 있고, **1원** 동전에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가 있다.

주요 용어

- **10만양병설**
 - 이이는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02 만 원권과 오만 원권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한국에서 가장 큰 금액의 지폐는 **오만 원권**이다. 과거에는 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으나 최근 오만 원권이 추가되었다. 만 원권과 오만 원권 속에서도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만 원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이 나타나 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조선은 매우 평화로운 가운데 크게 발전하였다. 당시 세종대왕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오만 원권에는 지폐의 인물 중 유일한 여성인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다. 신사임당은 앞서 오천 원권에 나타나 있는 이의 어머니이다. 신사임당은 아들인 이의를 훌륭한 학자로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 특히 그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으로 기억되고 있다.

더 배우기 :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한글은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렸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이전에는 중국에서 전해진 한자로만 글을 적었다. 하지만 한자는 무척 배우기 어려워서 높은 신분의 양반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일반 백성들은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쓸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세종대왕은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

어주고자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후 백성들은 농사에 필요한 책을 읽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으며 한글 소설 등도 등장하게 되었다.

주요 용어

- **측우기** :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측우기는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로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다.
- **현모양처** : 자상한 어머니이자 좋은 아내라는 뜻으로 신사임당과 같은 여성을 의미한다.

정리하기

1. 천 원권과 오천 원권에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 천 원권의 이황과 오천 원권의 이이는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들임.
- 이황은 높은 학문 수준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 힘씀.
- 이이는 학문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음 .

2. 만 원권과 오만 원권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 만 원권에는 세종대왕이, 오만 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있음.
- 세종대왕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며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듦.
- 신사임당은 지폐의 인물 중 유일한 여성으로 어머니와 아내로서 또 훌륭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줌.

41. 한국의 인물사 II (영웅적인 인물들)

학습목표 보기

1. 광개토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유관순과 김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우리는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역시 과거 수많은 전쟁을 겪었으며, 그 중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들이 존재한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웅 중 한 명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다.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은 넓은 영토를 점령한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다. 그는 뛰어난 용기와 전략으로 주변 여러 나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또한 남쪽에 있던 신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자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을 몰아내기도 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릉비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국의 영웅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인물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인물이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막아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나중에는 일본군에 비해 배와 병사가 무척 부족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작전과 지도력을 발휘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은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바탕으로 결국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알아두기 :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한국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그는 독재정권에 맞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길을 제시하였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용어

- **광개토대왕릉비**

- 중국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 **거북선**

-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거북 모양의 배이다.

02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

과거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한국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훌륭한 위인들의 뜻을 기억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유관순**을 꼽을 수 있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는 일본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다. 일본은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을 잡아갔다. 유관순은 감옥에 갇혀서도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고, 결국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17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김구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다. 김구는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김구의 주도 하에 수많은 독립운동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구는 해방 이후에도 남과 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김구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도자로 남아있다.

더 배우기 : 아시아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2014년 현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한국인 반기문이다. 반기문은 어릴 때부터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2006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반기문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원자력이나 기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용어

- **3·1 독립운동**
 - 1919년 3월 1일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3·1 독립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조직했던 임시정부

정리하기

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왕으로 넓은 지역을 점령했음.
-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바다를 지켰던 조선의 장군임.

2.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

-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음.
- 유관순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을 이끌었음.
-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독립운동을 했고 남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

42. 역사 속 한국의 문화예술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귀족과 양반이 누린 예술 문화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서민 문화의 특징과 종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01 귀족과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최근 한국의 드라마에서 사극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극은 한국의 과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신분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랐다.

고려시대 주로 사회를 다스렸던 이들은 **귀족**이었다. 귀족은 높은 신분을 지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귀족은 다른 평민과 달리 쉽게 관리가 될 수 있었고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았다. 특히 당시의 귀족은 매우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당시 푸른 빛깔을 넣은 도자기는 **고려청자**라고 하여 여러 나라로 수출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사회의 지배 계급이었다. 양반은 예를 중시하여 격식에 맞는 옷차림과 언행을 하였다. 양반은 글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농사와 장사 같은 일은 천하게 여겼다. 그리고 글을 읽지 않을 때에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였다. 당시 양반이 썼던 훌륭한 시와 글씨(**서예**), 멋진 그림들이 아직 남아있다.

알아두기 : 시조는 무엇일까?

시조는 한국 고유의 '시'로 고려시대부터 발달하였다. 시조는 글자의 수나 기본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주로 귀족이나 양반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이나 평민들도 시조를 즐겨 짓게 되었다. 시조의 내용은 주로 나라에 대한 충성, 자연 속에서의 여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하다.

주요 용어

- **고려청자** :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 빛을 내는 도자기
- **서예** : 글씨를 붓으로 아름답게 쓰는 예술

02 서민은 어떻게 살았을까?

과거 한국에서 **서민**은 귀족이나 양반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다. 힘들었던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남아있다. 특히 조선시대 서민의 삶은 당시 화가들의 **풍속화**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춤과 노래를 즐겼는데 **판소리**와 **탈춤** 등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판소리**는 북소리에 맞추어 몸짓과 이야기를 섞어가며 부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이다. 판소리에 담긴 이야기 속에는 착한 것을 권하고 나쁜 것을 벌하는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그리고 **탈춤**은 사람들이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하는 공연을 말한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탈을 쓰고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나 관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서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서민들은 평소에 현실에서는 드러낼 수 없었던 생각을 탈춤을 통해 표현하며 그것을 즐겼다.

더 배우기 : 민화는 어떤 그림일까?

과거에는 주로 양반이나 귀족 등 비교적 풍요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서민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그림들을 따라하거나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서민들이 특별한 형식없이 소박하고 재미있게 그린 그림들을 **민화**라고 한다. 민화는 주로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자연 또는 동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서민들은 민화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건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했다.

주요 용어

- **서민** :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일반 사람
- **풍속화** :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

정리하기

1. 귀족과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 고려시대 귀족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
- 고려시대에는 매우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가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려청자임.
- 조선의 양반들은 예를 중시했고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며 그림을 그렸음.

2. 서민은 어떻게 살았을까?

- 서민은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어려운 삶을 살았음.
- 풍속화를 통해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음.
- 판소리는 북소리에 맞추어 몸짓과 이야기를 섞어가며 부르는 한국의 전통 노래임.
- 탈춤은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한국의 전통 공연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음.

43. 한국의 주요 문화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주요 문화재를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 종교 문화와 왕실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의 종교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교문화가 발달하였다. 한국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였다.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는 오랜 시간 동안 왕이나 귀족에서부터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국 곳곳에는 절과 불상, 탑 등 다양한 불교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역에 가면 많은 불교 유적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불국사는 부처님의 뜻을 잘 형상화하여 만든 대표적인 절이다. 바위를 다듬어 만든 석굴암은 신라인의 불교 신앙과 우수한 조각 기술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도 불교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유산이 바로 **고려대장경**이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렸고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무판에 새겨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나무판이 8만장이 넘어서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알아두기 : 한국의 전통마을 : 하회와 양동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하회마을**과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양동마을**은 과거 유교의 영향 하에 있었던 전통마을의 모습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 이곳에는 과거 양반들이 살았던 기와집과 서민들의 초가집이 남아있으며 과거 선비들이 공부하던 장소도 만날 수 있다. 특히 하회마을은 1999년 영국 여왕이 방문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주요 용어

- **고려대장경과 해인사**
 - 현재 고려대장경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 **한국의 불교문화**
 - 한국의 불교문화는 일본으로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02 한국 왕실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다. 왕은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왕의 강력한 권위를 보여주는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왕이나 왕비가 묻혀있는 무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무덤 속에서 과거 왕이나 왕비가 사용했던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화려한 장식의 금관과 유리잔, 토기 등은 찬란했던 신라 왕실 문화를 잘 보여준다 .

한국의 왕조문화는 500년간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당시 왕이 살던 궁궐이 남아있다. 그 중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이다. 웅장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고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경복궁은 오랫동안 조선 왕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더 배우기 :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의 문화유산은?

유네스코는 세계 협약에 따라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현재 **석굴암과 불국사, 고려대장경,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 유적, 조선 왕릉, 하회·양동 마을**이 현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이런 문화유산 외에도 우리나라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문화유산, **종묘제례, 판소리나 강강술래,**

아리랑 강릉단오제, 김장 같은 무형문화유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요 용어

- 조선의 궁궐
 - 조선의 궁궐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덕수궁), 경희궁의 다섯 곳이 있다.

정리하기

1. 한국의 종교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불교문화가 발달했음.
-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등의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음.
- 고려시대에는 부처님의 힘으로 외세를 막아내기 위해 고려대장경을 만듦 .

2. 한국 왕실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신라 왕들의 무덤 속에서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음 .
- 조선의 왕들이 살던 아름다운 궁궐들이 남아있음.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중에는 한국의 왕조와 관련된 문화유산도 포함되어 있음 .

지리

44. 한국의 위치, 기후, 지형

학습목표 보기

1. 한국의 기후, 지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01 한국의 기후와 계절은 어떠할까?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불리는 4개의 계절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각 계절간의 날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무척 달라진다. 봄에는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하며, 이따금씩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불어온다. 여름에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의 영향으로 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가을은 대체로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맑고

화창한 날씨인 경우가 많다.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다.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을 즐길 수 있지만, 황사가 올 때는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 이를 즐기는데, 간혹 비가 많이 오면 홍수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가을에는 울긋불긋 물든 가을 산에서 단풍놀이를 즐긴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는 김장을 담그면서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한다. 겨울에는 눈썰매나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봄(3~5월)**

- 포근하고 따뜻함
- 황사, 꽃샘추위(초봄)

- **여름(6~8월)**

- 무덥고 습함
- 열대야, 피서, 집중호우, 태풍, 장마

- **가을(9~11월)**

- 화창하고 건조함
- 낙엽, 추수, 단풍

- **겨울(12~2월)**

- 춥고 건조하고 눈이 내림
- 눈, 폭설

알아두기 : 계절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계절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계절에만 주로 판매되는 **계절상품**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날씨가 무척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냉면 같은 차가운 음식이 많이 팔린다. 반대로 날씨가 무척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주로 팔린다.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돌이나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 등의 난방용품이 대표적이다. 계절상품은 특정 계절에만 주로 팔리기 때문에 이 계절이 지나면 구입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주요 용어

- **기후** : 일정 기간의 기온, 강수, 바람 등의 대기 상태

02 한국의 지형(산지, 평야, 바다)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국은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산지와 평야, 바다 등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다.

한국에는 산이 전체 국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동쪽지역으로 가면 한반도의 등줄기로 불리는 **태백산맥**을 따라서 많은 산을 볼 수 있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태백산맥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이다.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있다.

한국의 서쪽과 남쪽지역에서는 강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호남 평야와 나주평야로 이곳에서는 대체로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동쪽, 남쪽, 서쪽의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다양한 해안 지형도 볼 수 있다. 삼면 중에 남해안과 서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 반면, 동해안은 해안이 비교적 단조로우며 모래사장이 크게 발달해 있다.

더 배우기 : 백두대간이란?

한반도의 지형을 설명할 때 흔히 여러 산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선시대 출간된 <산경표>는 한반도의 지형을 다르게 설명한다. 즉, <산경표>는 백두산에서부터 남쪽 지리산까지 이르는 큰 산줄기라는 의미에서 **백두대간**을 제시하고, 이를 따라 한반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산경표>의 해석은 실제 한반도에 있는 산과 강의 모습 뿐만 아니라 과거 각 지방을 구분하는 언어와 풍습 차이까지도 잘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백두대간을 따라서 긴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백두대간이라는 단어가 더욱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 용어

- **지형** : 땅의 모습
- **산지** : 산이 많은 지역
- **평야** : 평평한 땅

정리하기

1. 한국의 기후와 계절은 어떠할까?

- 한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가 크게 다름 .
-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많이 달라짐.

2. 한국의 지형(산지, 평야, 바다)은 어떠한 모습일까?

- 한국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형태임.
-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음.
- 산지가 국토의 약 65%를 차지함.

- 서쪽과 남쪽에는 강을 중심으로 평야가 발달함.

45. 한국의 중심부, 수도권

학습목표 보기

1. 수도권의 위치, 인구, 산업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한 까닭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모습은 어떠할까?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2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의 중앙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북쪽을 강북, 남쪽을 강남이라고 한다. 서울에는 면적에 비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 서울이 한반도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지만, 서울의 전체 인구는 약 1,050만명(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한다.

서울에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 정부기관들과 기업, 문화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시설과 명문 대학도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은 동대문 시장, 노량진 수산 시장 등과 같은 대규모 도매 시장, 대형 백화점 및 복합 쇼핑몰 등이 모여 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주할 집 부족, 시내 교통 혼잡, 공기 오염과 소음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관공서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서울 근교지역에 신도시를 건설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알아두기 : 서울은 언제부터 수도였을까? 🤔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 나라의 도읍지(수도)를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결정하면서부터 서울은 한국의 수도가 되었다. 1910년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수도의 기능을 잠깐 잃기도 하였지만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면서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자리하고 있다. 서울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치뤄 내며, 세계 속의 도시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주요 용어

- **수도권** : 수도 서울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및 인천지역
- **인구** :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

02 또 다른 중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모습은?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27개 시와 가평군을 비롯한 4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의 인구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오늘날에도 화성시, 파주시, 용인시 등에 신도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옮겨오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현재 약 1,2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서비스업, 공업, 농업 등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하였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인구가 많아서 우수한 기술자와 노동력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상품을 팔기도 쉽다.

인천은 서울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큰 도시로 크고 작은 일부 섬들도 포함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일찍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기능해왔다. 특히 인천에는 한국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인천은 국가간 교류의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더 배우기 :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

수도권에 약 2,600만 여 명(2012년 기준)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모여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에서 일자리,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 명문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점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일자리,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보다 많이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 **신도시** : 서울의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은 거주형 도시
- **무역** : 나라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정리하기

1.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모습은 어떠할까?

- 대한민국 인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 인구가 집중된 까닭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임 .
- 인구 집중으로 인해 주거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나타남.

2. 또 다른 중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모습은?

-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서비스업, 공업, 농업 등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하였음.
- 인천은 한국을 대표하는 무역 항구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국가 간 교류의 중심 도시임.

46.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강원, 충청

학습목표 보기

1. 강원, 충청지역의 위치, 인구, 산업,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강원지역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까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아름다운 자연경관 강원지역의 모습은?

강원도는 한반도 중앙부 동쪽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으로 이뤄져 있고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이 지역은 남한에서 가장 북쪽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춤고 눈이 많이 내린다. 흔히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을 영동 지방, 서쪽을 영서 지방이라고 부른다. 영동 지방이 영서 지방에 비해 따뜻한 편이다.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 면서도 높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철도, 항공편, 고속도로 등이 생기면서 교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는 특히 자연경관이 뛰어나서 수많은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설악산이나 오대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산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해와 인접하여 수많은 해수욕장이 발달해 있어서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다.

알아두기 : 강원지역에 관광산업이 발달한 이유 3가지는?

첫째, 강원지역은 여름엔 서늘해서 피서를 즐기기가 좋으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가 좋다. 둘째, 강원지역에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이름난 산들과 함께 넓게 펼쳐진 동해바다가 아름답다. 셋째, 강원지역에서는 대관령 눈꽃축제, 경포 해돋이 축제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주요 용어

- **태백산맥** :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주요 산맥으로 남북을 가르고 있음

02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충청지역의 모습은?

충청지역은 남한의 중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도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나눠진다.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접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곳에는 국제공항이 있는 청주와 호수로 유명한 충주가 있다. 충청남도에는 옛날 백제의 도읍지(수도)였던 공주와 부여 등이 있다.

대전광역시는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대도시이다. 이곳에는 과학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어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993년 세계과학엑스포가 개최되었으며, 매년 10월에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충청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다. 원래 서울에 있던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오면서 충청지역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배우기 : 세종특별자치시로 인해 새로운 중심지가 된 충청지방

서울에 있던 주요 행정부처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12년 9월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부처와 20개 소속 기관들이 이전을 마무리하게 될 예정이다. 2014년 말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인구 및 자원이 집중된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기

1. 아름다운 자연경관 강원지역의 모습은?

- 강원지역에는 높은 산이 많고, 동해 바다와 접해있음.
- 강원지역은 교통의 발달로 점차 가까워짐.
- 강원지역에는 관광업이 발달함.

2.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충청지역의 모습은?

- 충청지역은 평야가 발달해 있고, 교통이 편리함.
- 대전광역시에는 과학기술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함.
- 정부 행정기관이 충청지역으로 옮겨오면서 또 다른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음.

47. 지역경제의 중심, 경상, 전라, 제주

학습목표 보기

1. 경상, 전라지역의 위치, 인구, 산업,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제주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광업이 발달한 까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공업과 함께 발달한 경상지역의 모습은?

경상지역은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영남지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이곳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라는 대표적인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 또한 독도와 울릉도 등의 섬이 속해 있기도 하다.

경상지역에서는 일찍이 공업이 발달했다 .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는 섬유와 전자 산업이 크게 발달했다 . 특히 해안가 쪽으로는 항만이 발달하여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유리하여 큰 공업 단지가 발달해있다 . 포항에 있는 종합 제철소나 울산 지역에 있는 조선소 등은 이 지역의 공업 발전을 잘 보여준다 .

경상지역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도 유명하다 .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천년의 불교 예술과 문화가 꽂피웠고,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조선 유교 문화가 발전해왔다. 이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는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 안동의 도산 서원과 하회마을, 영주의 부석사 등을 들 수 있다 . 이처럼 특색있는 문화유산이 많은 경상지역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

알아두기 : KTX로 인해 한층 더 가까워진 남부 지방

한국고속철도 **KTX**(Korea Train Express)는 시간당 최고속도 305km 이내로 달리며, 2004년에 개통되었다 . KTX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8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3시간 10분이 걸리게 되어 새마을호 등 다른 열차를 이용할 때 걸리는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이상이 단축되었다 . 2010년에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가 되면서 대구~경주 ~울산~부산간 구간과 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이 새로 생겼고, 2011년에는 전라선 KTX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 역까지 평균 3시간 40분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 . KTX는 각 지역 간 거리를 더욱 좁혀 나가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요 용어

- **문화유산** : 다음세대로 전해질 가치가 있는 정신적·물질적 문화재나 양식
- **관광자원** :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대상으로 자연, 문화유산 등

02 식량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과 관광도시 제주

식량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

전라지역은 서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호남지역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이 지역은 일찍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어 벼농사가 잘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 또한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어업과 수산업도 발달하였다 . 특히 서해안은 커다란 갯벌이 펼쳐져 있어 다양한 종류의 조개류 등도 양식한다 .

다양한 식재료들이 생산되는 이곳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 전주의 비빔밥, 순창 고추장 등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또한 보성의 녹차밭도 유명하다. 광주광역시, 광양시 등에서는 공업도 발달하였다. 최근 교

통이 편리해지면서 전라 지역을 찾는 기업체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관광도시 제주

남쪽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날씨,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 등의 관광자원 덕분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 제주지역은 특히 예로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기로 유명하여 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

더 배우기 :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선정된 제주

제주도는 동서로 약 73km, 남북으로 31km인 타원형 모양의 화산섬으로, 섬 중심부에 높이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다 .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한다 . 땅 위에는 크고 작은 368 개 오름이 펼쳐져 있고, 땅 아래에는 160여 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작은 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오름과 동굴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란 이름으로 2007년 유네스코(UNESCO)로부터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거문오름,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로 이루어져 있다 .

주요 용어

- **양식** : 어린 새끼를 길러서 거두어 들임
- **오름** : 소규모 화산체를 뜻하는 제주어

정리하기

1. 공업과 함께 발달한 경상지역의 모습은?

- 경상지역은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적인 지방 주요 도시를 포함하고 있음 .
- 이 지역에는 큰 규모의 공업 단지가 있어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음 .
- 경상지역은 경주, 안동 등을 중심으로 신라 및 조선 시대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2. 식량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과 관광도시 제주

- 전라지역은 서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평야가 많아 대표적인 벼농사 지역임 .
- 바다를 끼고 있어 어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였음 .
- 전라지역은 전통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유명함 .

- 제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따뜻한 날씨, 한라산 등의 관광자원을 가졌음.

48. 지역마다 다른 관광명소와 축제

학습목표 보기

1. 지역별 관광명소나 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지역별 관광명소나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01 지역별 관광명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수도권

서울은 정치,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관광명소**가 많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은 한국의 정치를 대표하는 장소이다. 명동과 남대문시장 등은 상업 관광 명소다.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대학로는 문화 관광명소로 인기가 높다. 수도권에 자리한 강화도 갯벌은 세계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또한, 각종 철새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강원·충청지역

강원지역의 동해안은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많다. 이들 모래사장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며, 경포대, 낙산, 망산해수욕장이 유명하다. 충청지역의 단양군에는 고수동굴, 천동굴 같은 천연 석회암 동굴이 많다. 이들 동굴에는 다양한 모습의 종유석과 석순이 어우러져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뽐낸다.

경상·전라지역

경상지역에는 늪이 많다. 특히, 창녕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며,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전라지역은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슬로시티(slow-city)**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도, 청산도, 담양 등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슬로시티 운동은 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려는 이 지역 주민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알아두기 : 전통과 현대를 가르는 물길, 청계천

서울의 **청계천**은 전통과 현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조선시대에는 생활하천으로 이용되다가, 산업화의 영향으로 1960년대에는 도로가 덮이며 지하에 갇혀 있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청계천에는 조선시대의 다리 9개가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며, 청계천 주변에 조성된 시장은 70년대 한국 상공업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또 청계천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주요 용어

- **관광명소** : 볼 거리가 있어 관광할 만한 곳
 - **슬로시티 운동** :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며 느림의 미학을 실천해가자는 도시 변화 운동
-

02 과거와 현재가 담긴 지역별 축제는?

수도권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축제가 열리고 있다. 수도 서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서울 무형 문화제 축제**가 대표적이다. 경복궁이나 창경궁, 덕수궁 등의 고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경기지역에서는 **특산물**과 연계한 축제가 유명하다.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 등지에서 **세계 도자기 엑스포**,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국제 꽃 박람회** 등이 열린다.

강원, 충청지역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 지역의 경포대는 해돋이가 유명하여 **해돋이 축제**가 열리며,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는 대관령과 태백산에서는 **눈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옛날 백제의 도읍이 있는 충청지역은 **백제 문화제**를 비롯하여, **보령 머드 축제** 등이 유명하다.

경상, 전라지역

경상지역과 전라지역에서는 각종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경상지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통영 한산대첩 축제**, **진해 군항제**, 문화 축제인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울릉도 오징어 축제** 등의 축제가 해마다 열린다.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전라지역에서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남원 춘향제** 등의 축제가 열린다.

더 배우기 : 세계인의 날 행사란?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한국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9조)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있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2008년 5월 20일에 첫 번째 기념식이 열린 이후 매년 전국에서 기념식과 관련 문화 행사 등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주요 용어

- **특산물** : 어떤 지역에서 특별하게 주로 생산되는 생산물을 뜻한다.
-

정리하기

1. 지역별 관광명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 서울에는 청와대, 명동, 대학로 등 정치·상업·문화 명소가 많음.

- **인천**에는 강화도 갯벌이 유명함.
- **강원지역**의 명소로는 경포대, 낙산해수욕장이 있음.
- **충청지역**은 고수동굴, 천동굴 등의 석회암 동굴이 유명함.
- **경상지역**은 창녕 우포늪 등 늪지가 유명함.
- **전라지역**은 슬로시티가 많음.

2. 과거와 현재가 담긴 지역별 축제는?

- **서울**에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서울 무형 문화제 축제 등이 있음.
- **경기지역**에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고양 국제 꽃 박람회 등이 있음.
- **강원지역**에는 대관령 눈꽃축제, 경포 해돋이축제 등이 있음.
- **충청지역**에는 백제 문화제, 보령 머드 축제가 있음.
- **경상지역**에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 국제 탈춤 페스티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있음.
- **전라지역**에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남원 춘향제 등이 있음.

49.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사회 기관

학습목표 보기

1.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지역사회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2. 현장 답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인구, 발달한 산업을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다.

01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한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지역 사회 기관**이 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이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주민체육 시설** 등의 공공시설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먼저 지역社会의 **행정기관**에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지역의 각종 도로 및 하수도를 공사하는 일에서부터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지역의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지역사회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이다. 지역 사회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일을 나누어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들과는 다르다. 공공시설의 예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 책을 무료로 빌리거나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 공연 등을 무료 혹은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구)민회관, 공원 및 지역 체육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알아두기 : 문화생활을 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요!

지역마다 연극, 영화, 뮤지컬, 콘서트,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종 공연을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02 지역의 특성을 답사를 통해 살펴볼까?

답사란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비해 답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훨씬 더 생생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답사는 답사 전, 답사 중, 답사 후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답사 전 단계에서는 계획을 세운다. 이때 답사 주제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답사 장소를 고른다. 또한 답사할 때 조사할 내용, 답사 날짜와 시간, 답사방법, 필요한 준비물 등을 미리 정해 놓는다.

답사 중 단계에서는 실제 답사가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답사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답사 방법으로는 인터뷰하기, 관찰하기, 관련책 조사하기, 지도 그리기 등을 들 수 있다.

답사 후 단계에서는 정리 및 발표를 한다.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부족한 자료나 내용이 있다면 보충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한다. **답사보고서**에는 답사날짜, 답사장소, 답사목적, 답사방법, 답사내용, 유의사항, 준비물 등이 들어가야 한다.

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답사목적, 답사장소, 답사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현장 답사를 하기 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답사 목적과 내용에 맞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정리하기

1.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 **행정기관**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도록 돋는 지역사회 기관으로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이 있음.

- 공공시설은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서관, 학교, 공원, 보건소 등이 있음 .

2. 지역의 특성을 답사를 통해 살펴볼까?

- 답사는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함.
 - 답사보고서에는 답사날짜, 답사장소, 답사목적, 답사방법, 답사내용, 유의사항, 준비물 등이 들어가야 함.
 - 답사는 전·중·후 단계에 따라 계획을 세워 이루어져야 함.
-

50.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학습목표 보기

학습목표 보기

1.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01 우리 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 따라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친다. 도시의 경우라면 보통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 주차문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시골지역에서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문제, 환경문제, 새로운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이 나타난다 . 그리고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익이 충돌하거나 외국인을 차별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밖으로는 자신이 사는 지역만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에서 지역 간의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기 위한 시설, 하수도 처리 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은 지역 내로 들여오는 것을 대부분 반대한다. 반대로 학교나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호시설**은 자기 지역에 들여와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용어

- **선호시설** : 지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시설
 - **혐오시설** :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설
-

02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지역기관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지역기관 공무원이나 지역구 의원 등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함께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때로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 용어

- **시민단체**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만든 집단
-

정리하기

1. 우리 지역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지역 내에서는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차별문제, 환경문제 등이 있음 .
- 지역 간에는 혐오시설을 받지 않고 선호시설을 받으려고 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음 .

2.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대화와 타협이 중요함 .
- 지역문제 해결 방법에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시, 시민단체 활동, 언론 활동 등이 있음